

# 경찰대학 기출 분석

## 국어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2022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http://www.police.ac.kr>

※ 총 13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적응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의 한국어와는 꽤 다르다.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도 생기는 일이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주류 언어들과 크게 달라서,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들의 모국어가 행사하는 간섭의 흔적이 짙어 보일 수밖에 없다. 많은 외국어에서 조음부가 같은 자음들을 성대 올림 유무(유성/무성)로 변별하는 데 견주어, 한국어는 조음부가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 방해하는지에 따라 이 자음들을 변별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ㄱ/ /ㅋ/ /ㆁ/, /ㄷ/ /ㅌ/ /ㄷ/, /ㅈ/ /ㅊ/ /ㅈ/의 구별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 넘지 못할 산이다.

한국어에서 유성 자음은 /ㄴ/ /ㄹ/ /ㄹ/ /ㅇ/ 소리 말고는 유성음(이들 네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로만 실현된다. 예컨대 ‘가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둘 다 ‘ㄱ’으로 시작하지만, 음성 수준에선 각각 [k]와 [g]로 실현된다. 그래서 ‘가구’는 [ka:gu]로 발음된다. 둘째 음절의 무성 평자음 ‘ㄱ’이 그것을 둘러싼 두 모음의 영향을 받아 유성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어서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실현하지만, 자신들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다.

무성 평자음이 두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 자음으로 변한다는 규칙을 비롯해 한국어는 복잡한 음운 규칙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예컨대 ‘독립문’을 글자 그대로 [독립문]으로 읽지 않고 [동립문]으로 읽어야 하고, ‘실내’를 [실내]로 읽지 않고 [실래]로 읽어야 한다. 또 ‘낮을’, ‘낮을’, ‘낮을’을 발음할 때 첫 음절 마지막 음운이 글자대로 [츠], [지], [시]로 실현되는 데 비해, 앞의 명사들이 홀로 남아 ‘낮’, ‘낮’, ‘낮’이 되면 그 마지막 소리가 왜 하나 같이 [ㄷ]으로 실현되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대다수 한국인들도 모른다. 그들은 다만 그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내면화가 자신들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ㅡ/나 /ㅣ/ 같은 모음을 지닌 언어는 매우 드물어서, 외국인들이 이 소리를 제대로 익히는 일도 쉽지 않다.

통사 수준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통사 구조가 한국어와 꽤 엇비슷한 일본어 화자가 아닌 경우에, 한국어 초보자 외국인들은 단어들을 똑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격 조사 ‘이’, ‘가’와 보조사 ‘은’, ‘는’의 구별은 이들에게 ㉢ 악몽이다. 구별은커녕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에 없는 조사라는 ㉣ 괴물을 아예 생략해 버린다. 통사 구조를 익히는 것으로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한국인들도 더러 헛갈려할 만큼 복잡한 경어 체계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은 이 모든 ㉤ 어려움을 이겨낸 예외적인 사람들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다.
- ②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 ③ 한국어의 음운 구조는 통사 구조와 달리 체계적이다.
- ④ 한국어 음운 규칙의 이유를 한국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
- ⑤ 한국어의 조음부가 같은 자음은 성대 올림 유무로 변별된다.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성 평자음이 두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 자음으로 변한 사례로는 ‘논리[놀리]’가 있다.
- ② ‘독립문[동립문]’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섭리[섬니]’가 있다.
- ③ ‘실내[실래]’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칼날[칼랄]’이 있다.
- ④ ‘낮을’, ‘낮을’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웃이’, ‘웃이’가 있다.
- ⑤ ‘낮’, ‘낮’의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갓’, ‘갓’이 있다.

3.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외국인들은 ‘의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렵겠군.
- ② 복잡한 음운 규칙을 내면화한 한국인이 외국어를 발음하기는 어렵지 않겠군.
- ③ 외국인들이 가끔 실수로 반말하는 것은 한국어의 경어 체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겠군.
- ④ 외국인들이 “아이 학교 가요.”라고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조사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겠군.
- ⑤ 영어 초보자 한국인이 “Marry me.”라고 하지 않고 “Marry with me.”라고 실수하는 것은 모국어인 한국어가 영어에 간섭한 것이겠군.

4.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음성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 가운데 말할 때에 사용되는 소리를 가리킨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인 음운과 달리 음성은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로,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음운은 의미 변별에 관여하는 최소의 말소리이다.

- ① 외국인에게는 ‘가구’의 ‘ㄱ’들이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겠군.
- ② ‘가구[ka:gu]’의 ‘k’와 ‘g’는 한국어에서 음운이 아닌 음성이겠군.
- ③ ‘가구’에서 둘째 음절의 ‘ㄱ’이 유성음이 됨으로써 의미 변별이 되는군.
- ④ 한국어에서는 성대 올림 유무만으로 단어의 뜻이 변별되는 경우는 없겠군.
- ⑤ 한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자음과 모음만 다른 글자로 표기하는군.

5. ㉠~㉣ 중 문맥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빌렘 플루서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서 글쓰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디지털이라는 형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 행동, 의식, 지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 따라서 그는 ㉠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실험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글쓰기 장(場)에서는 저자로부터 독자로 향하는 일방적 의미 전달 관계가 저자와 독자의 상호 대화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글쓰기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영역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글쓰기 조건, 지식 전달 방식, 지식 분배 방식을 변화시킨다. 디지털 글쓰기는 대화 구조에서 사용되는 양방향적 채널을 통해 지식을 확대·재생산한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일방적 전달 방식이 구조화한 지식의 특징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저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문자와 개념으로 바꿔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 디지털 시대의 저자는 문자와 개념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수용자와 주고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만들어진 이미지를 개념으로 재구조화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도 있다.

플루서는 기술적 발전과 대중 매체 확산에 따른 대중문화 현상들이 인간과 세계를 의미화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대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디지털 시대의 주도적 소통 방식으로 명명한 ㉢ 기술적 형상은 이전 시대의 주도적 소통 방식이었던 문자의 개념적 의미를 이미지로 펼쳐 보여 준다. 하지만 쉽고 빠르게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디지털 이미지는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플루서는 디지털 이미지가 갖는 현실 은폐와 기만의 작용을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기술적 형상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 어울리는 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쉽고 간단한 이미지에 만족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만 집중한다. 대중이 비판의 필요성을 간파하거나 무시할 때 권력과 자본은 기술적 형상을 장악하고 대중 매체를 이용해 정보 수용자들을 탈정치화, 탈윤리화, 탈가치화할 수 있다. 이에 저항하려면 기술적 형상을 이해하고 기술을 이용해 상상과 개념을 종합하는 새로운 능력이 절실하다. 플루서는 이를 ㉣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이름 짓는다. 또한 기술적 상상력을 갖춘 사람을 기술적 상상가라고 부른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상상가, ㉤ 정보 유희자가 되려면 만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기만의 도구로 오용될 위험을 간파해야 한다.

6. 문맥상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글쓰기의 조건과 방식, 도구, 정보 전달 방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변화  
 ② ㉡: 이미지와 상징을 문자로 표현하는 사람  
 ③ ㉢: 디지털 도구나 기계를 이용해 만든 대화 구조  
 ④ ㉣: 문자가 개념화한 의미를 선형적으로 배열하는 능력  
 ⑤ ㉤: 디지털 이미지가 갖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7. [A]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둑, 장기, 체스 경기 이해에 필요한 기본 규칙  
 ② 폐쇄 회로 카메라와 얼굴 인식 기능의 영상 접속 프로그램  
 ③ 누구나 글을 올리고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위키  
 ④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⑤ 모든 것이 검색되고 저장되는 스마트 기기,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8. 윗글의 논지를 지지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현상은 디지털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② 기술적 발전은 의미의 해독과 생산을 방해해 수용자들을 탈정치화한다.  
 ③ 상호 작용성, 지식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 등 디지털 글쓰기의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  
 ④ 디지털 글쓰기 주체들은 협력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해 탈정치화에 저항할 수 있다.  
 ⑤ 디지털 사회의 통제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소통 방식에 어울리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는 뽀뽀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애쓴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휘둥그란히 받쳐 들었다!  
지구(地球)는 연(蓮)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 정지용, 「바다 2」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툽툽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뭉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④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다)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 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멎드는 소리 멎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길 날아 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뺨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 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영기는 소리 식어 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훑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 김선우, 「단단한 고요」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이국적인 소재를 시어로 활용해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을 살아 있는 것으로 비유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의 지배적 정서는 삶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다.
- ④ (가)~(다)는 시제 변화를 통해 화자와 독자 사이 거리를 조절한다.
- ⑤ (가)~(다)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활용해 정서의 변화를 이루었다.

10.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비유와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파도치는 해변을 형상화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바다의 움직임의 제시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 파도의 흔적을 구체화했다.
- ⑤ 전반부는 관찰을, 후반부는 상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11. <보기>를 참고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평역에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 냉온 감각 등을 도입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과 애정 어린 시선이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① ‘대합실’은 다양한 서민 군상들이 모여 있어 애환이 느껴지는 공간이군.
- ② ‘뚝뚝 난로’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소재로 사용되었군.
- ③ ‘그믐처럼 멎은 줄고’는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는군.
- 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고달픈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주는군.

12. <보기>를 참고할 때,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관계가 ㉠와 유사한 것은? [3점]

<보기>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각각의 구상성과 추상성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진다. ㉠의 경우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모두 구상성을 지니고 있다.

- ① 사랑은 숭고한 정념
- ② 내 마음같이 푸른 모래밭
- ③ 추억인 양 내리는 물안개
- ④ 푸른 건반인 듯 주름진 계단
- ⑤ 해바라기처럼 타오르는 기도

1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했다.
- ② 역설법과 도치법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 ③ 정서를 배제하고 대상의 회화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나타냈다.
- ⑤ 시적 대상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의 사유는 가짜 정치가들로부터 진짜 정치가를, 소피스트들로부터 진짜 철학자를 가려내기 위한 ‘진품 가려내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가짜들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철학이라고 본다.

플라톤에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기만적 현실에 대한 의구심과 환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사유에는 가짜, 허상, 이미지 등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이 배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에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본질적 문제였다. 여기에서 그의 사유 전체를 관류하는 기본적인 주제들 중 하나가 성립한다. 만일 진짜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진짜에 대한 모방의 성공 정도에 입각해 존재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런 생각에는 현실 세계가 제작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맞물려 있으며, 이는 곧 현실 세계가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데아 모방론을 전제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론 중 하나는 인공물에 대한 자연물의 존재론적 우위에 관한 것이다. 자연은 이데아를 모방한 산물이지만 인공물은 자연물을 다시 모방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물 중에서도 실물과 그것을 그린 회화 사이에는 다시 존재론적 위계가 설정된다. 가령, ‘인공물로서의 의자’ 그리고 ‘의자를 그린 그림’은 존재론적 위계에서 차이가 난다. 현실 세계의 의자는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인공물이다. 의자를 그린 그림은 이 현실 세계의 의자를 다시 모방한 것으로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 플라톤에게 있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서 후자의 폄하는 현실 세계와 인위적 세계의 관계에서 후자에 대한 폄하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위계는 플라톤의 사유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플라톤의 가치관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저서로 『소피스트』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플라톤은 ‘모상술(模像術)’을 ‘사상술(寫像術)’과 ‘허상술(虛像術)’로 위계화한다. 『소피스트』에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데아와 유사한 것, 이데아로부터 아예 떨어진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존재론을 우선시하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체계화한 목적이 사실은 현실 세계 사물들 사이의 위계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데아는 바로 이 구분과 위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데아는 허상으로부터 직선을 긋고 그 선을 계속 연장할 때 도달하게 되는 가장 진실한 극점이다. 역으로 이데아라는 극점에서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을 계속 연장했을 때 도달하는 반대 극점은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데아론은 애초부터 순수 존재론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론적 맥락에서 착상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견해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정의한 후 주장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견해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통념과는 다른 해석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견해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의 일반적 견해에 대한 상반된 평가 내용을 비교한 후 그 이론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의 견해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용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실물과 유사하게 그린 의자 그림보다 이데아에 더 가깝다.
- ② 이데아론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뿐 아니라 모방물 사이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③ 이데아 모방론에서는 자연물의 존재론적 가치와 인공물의 존재론적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 ④ 현실 세계의 존재들은 이데아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위계를 갖는다.
- ⑤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보다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인위적 세계의 가치는 이데아에 대한 모방의 성공 정도에 따라 다르다.

16.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 실제의 남자 철수와 실제의 여자 순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남자의 이데아와 여자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
- ② 다운: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인간은 신을 모방한 창조물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
- ③ 우리: 성공한 케이팝 아이돌의 이미지가 팬에게 힘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그 아이돌의 이미지는 이데아인 거야.
- ④ 강산: 그림 그릴 때 활용하는 원근법, 명암, 투시법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지.
- ⑤ 만세: 여러 개의 의자 그림에 대해 가치를 매기려면 우선 의자의 이데아가 어떤 건지 알아야 하겠군.

17. 윗글을 참고해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사시가 역사보다 위대하다.’고 보았다. 모방 대상의 본질을 꿰뚫은 허구는 이데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을 ‘시적 진실’이라고 한다.

- ① ‘시적 진실’은 현실을 모방한 가짜의 극점이다.
- ② ‘시적 진실’은 ‘역사’보다 이데아로부터 떨어져 있다.
- ③ 모방 대상의 본질을 꿰뚫은 ‘서사시’는 ‘역사’보다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다.
- ④ ‘서사시’의 허구적 가치는 허상들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는가에 달려 있다.
- ⑤ ‘서사시가 역사보다 위대하다.’는 견해는 현실 세계에 대한 폄하가 반영되어 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잠자리에서 몸을 보호하거나 장식하던 옷을 벗어 놓고 보다 편안한 상태가 되려 한다. 이어서 잠이 들 때는 마치 옷을 벗어 놓는 행위처럼 의식도 벗어나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 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 잠드는 일은 판단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태아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자궁 속 태아, 말 배우기 이전의 유아처럼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되돌아가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a ‘퇴행’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자궁 속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꿈을 통해 정신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꿈을 자세히 관찰하면 수면 중 인간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은 꿈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 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항상 꿈꾸는 사람 자신이라는 점 등을 밝혀 주었다. 꿈의 이러한 특징을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신의 작용 방향이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있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정신적, 신체적 이상 증상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과장을 ‘꿈의 과장성’이라 부르는데 이 역시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처럼 꿈꾸는 사람이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를 자아로 되돌려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 꿈꾸는 사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 형태로 바꾸어서 보여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건을 암시해 주고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암시해 준다. 꿈속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세계로 집중하므로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외적 형태로 구체화하는 꿈의 역할을 ‘투사’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죽은 동료의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꿈 꾸는 사람 내면에 잠재한,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투사로 볼 수 있다.

깨어 있을 때는 꿈이 알려 주는 문제를 쉽사리 알아내기가 어렵다. 따뜻하고 화려한 옷이 상처나 결점을 가려 주는 것처럼 깨어 있는 의식은 내면세계를 가리거나 보호해 내면의 관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신이 옷을 벗기를 기다려 비로소 한 사람의 내면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1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기제이다.
- ② 수면 상태에서는 외부로 향하는 정신 에너지가 더욱 강해진다.
- ③ 꿈을 꿀 때 정신의 작용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의 내면으로 집중된다.
- ④ 깨어 있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꿈이 알려 주는 문제를 가리거나 발견을 어렵게 한다.
- ⑤ 깨어 있을 때보다 꿈을 통해서 신체적 이상 징후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9. ㉔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알코올 중독 치료 후 금주 강연을 다니는 사람
- ② 엄격한 부친을 두려워하지만 닮고자 하는 남자
- ③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는 청소년
- ④ 외과 수술에 거부 반응이나 두려움이 없는 의료진
- ⑤ 동생이 태어난 후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는 아이

20. <보기>를 참고해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제시한 정신의 세 가지 영역은 꿈에도 영향을 준다.

- 이드(id):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무의식. 쾌락 원칙을 따른다.
- 자아(ego): 현실을 고려하여 욕구를 억제하는 의식. 현실 원칙을 따른다.
- 초자아(superego): 성장 과정에서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의식. 도덕 원칙을 따른다.

- ① 꿈은 ‘이드’를 의식 세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꿈은 ‘자아’의 표현이므로 쾌락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꿈의 과장성’은 ‘초자아’가 무의식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 ④ 꿈에서 ‘이드’는 정신 작용의 방향을 외부 세계로 돌린다.
- ⑤ 꿈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므로 도덕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지금까지 상상한 바로는, 도시란 결코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㉑ 도시란 보다 더 멀고 아득한 곳에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철로 위를 바람처럼 내달리는 급행열차로도 하루 낮 하루 밤은 꼬박 걸려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온 것은 털털거리는 짐차였다. 그것으로도 고작 두세 시간밖에 걸리지 않다니……. 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결함처럼 내게는 느껴졌다.

녀석들은 지금도 그 교실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사철나무가 병사들처럼 늘어서 있는 남향 창으로는 푹푹한 햇살이 온종일 들이치고, 방아깨비 선생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간단없이 흘러나오는 그 4학년 우리 반 교실에 말이다. 유일하게 나의 자리는 비어 있을 게다. 창 쪽으로 둘째 줄 여섯 번째 책상……. 거기 내가 남긴 흠집과 낙서를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도회지로 전학 간 나를 조금은 부러워할 게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우리 뒤를 쫓아올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도시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㉒ 나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아버지는 물 대신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것은 단풍잎처럼 작고 빨간 1원짜리 종이돈이었다. 나는 곧장 한길가로 뛰어나갔다. 딸딸이 위에다 어항보다 큰 유리 항아리를 올려놓은 물장수가 거기 있었다. 항아리 속엔 온갖 과일 조각들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채워져 있었다.

나는 꼭 쥐고 있던 돈을 한 잔의 물과 맞바꾸었다. 유리컵 속에 든 물은 짙은 오렌지 빛이었다. 손바닥에 닿는 냉기가 갈증을 더 자극했다. 그러나 ㉓ 나는 마시지 않았다. 이 도시와 그 생활이 주는 어떤 경이와 흥분 때문에 실상은 목구멍보다도 가슴이 더 타고 있었다. 나는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받쳐 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어 걸음을 떼어 놓았다. 물론 나의 그 어리석은 짓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금세 제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봐, 너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나를 불러 세운 물장수가 그렇게 물었다. 나는 금방 얼굴을 붉혔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물장수가 다시 말했다.

“잔은 두고 가야지, 너, 시골서 온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나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숨이 찼다. ㉕ 콧날이 찡해지고 가슴이 짹 막혔다. 그러나 ㉖ 그 자리에 더 어정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던지듯 잔을 돌려준 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우리 세간살이들이 골목에 잔뜩 쌓여 있었다. 시골집 안방 윗목을 언제나 차지하고 있던 옛날식 옷장, 사랑채 시렁 위에 올려 두던 낡은 고리짝, 나무로 만든 쌀 뒤주와 조롱박, 크고 작은 질그릇 등. 판잣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그 골목길 위에 아무렇게나 부러 놓은 세간살이들은 웬지 이물스런 느낌을 주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흔히 보고 느껴 오던 바와는 사뭇 다른 모양이요, 빛깔이었다. 아마도 이웃인 듯한, 낯선 사람 몇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쁜 일손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판자벽을 기대고 웅크려 앉았다. 물맛이 어떠했던가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도무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속이 메스껍기도 했다. 눈앞의 사물들이 자꾸만 이물스레 출렁거렸다. 이사를 왔다, 하고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중얼댔다. 그래, 도시로 이사를 왔다. 아주 맥 풀린 하품을 토해 내며 새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촘촘히 들어앉은

판잣집들, 깡통 조각과 루핑이 덮인 나지막한 지붕들, 이마를 비비대며 길 쪽으로 늘어서 있는 추녀들, 좁고 어둡고 질척한 그 많은 골목들, 타고 남은 코크스 덩어리와 검은 탄가루가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길바닥들, 온갖 말씨와形形色색의 입성을 어지러이 드러내고 있는 주민들, 얼굴도 손도 발도 죄다 까맣게 탄 아이들…… ㉞ 나는 자꾸만 어지럼증을 탔고, 급기야는 속엿것을 울컥 토해 놓고 말았다. 딱 한 잔 분량의, 오렌지 빛 토사물이었다.

세간살이들을 대충 들여놓은 다음에 우리 가족은 이른 저녁을 먹었다. 아니 그것은 때늦은 점심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 도시에서 가진 첫 식사였다.

밥은 오렌지 물을 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노란 빛깔이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 온 그 물은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시궁창 바닥에다가 한 자 깊이도 안 되게 박아 놓은 펌프 물이니 오죽할라구요…….”

어머니는 아예 손갈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대기만 했다.

“내다 버린 구식물을 다시 퍼마시는 거나 다름없지 뭐예요.”

하지만 나는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던 판이었다. 게다가 어쨌든 귀한 이밥이었다.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술을 떠 넣었다. 그러고는 생전 처음 입에 넣어 보는 음식처럼 조심스레 씹었다. 첫내 같은, 아니 쇠의 녹 냄새 같은 게 혀끝에서 달착지근하게 느껴졌다. 다시 한 손갈을 퍼 넣었다. 그러자 저 오렌지 빛의 물을 마시고 났을 때처럼 속이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2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당시의 세태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을 긴박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④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병치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2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도시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막연한 이상과 동경이 투영된 곳이었다.
- ② ㉡: 도시가 ‘나’의 상상보다 실제로는 가까이 있었음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 ③ ㉢: ‘나’는 도시에서의 경이로운 체험이 주는 즐거운 흥분을 오래도록 느끼고자 한다.
- ④ ㉣: ‘나’는 뭔가 잘못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당혹해 한다.
- ⑤ ㉤: 도시의 낯선 생활에 대한 ‘나’의 실수로 인해 시골 출신 이라고 무안당한 ‘나’의 심리가 나타난다.

23. ㉡에서의 ‘나’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 ②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 ③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④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 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족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② 낯선 도시 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 ③ 도시의 물과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이다.
- ④ 도시의 위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도시를 두려워해 피하기만 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25.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난감 도시」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온 소년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는 이주 초기에 소년 ‘나’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도시에 대해 갖는 인상과 감정이 시골에서의 추억과 대비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심리 변화가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

- ① 시골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던 세간살이들이 이사 와서 보니 촌스럽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 ② 도시에 와서 첫 끼니로 시골에서는 귀했던 이밥을 지었으나 시골과 달리 나쁜 물 때문에 밥은 노란색을 띠고 녹 냄새가 났다.
- ③ 물장수로부터 편잔을 듣기 전에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 신기해 했지만, 편잔을 들은 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게 되었다.
- ④ 도시는 급행열차로 하루 낮과 하루 밤이 걸려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털털거리는 짐차로 두세 시간 만에 도착한 사실에 실망했다.
- ⑤ 시골 교실은 풋풋한 햇살이 비치고 선생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곳인 반면, 도시의 판잣집들 주변은 좁고 어둡고 질척한 곳으로 묘사된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약 이행으로 당사자들이 얻는 편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순편익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 계약불이행’이라고 한다.

먼저 (가) 사례를 보자. 큰 레스토랑을 개업하려는 A는 한빛조명이란 회사에 2천만 원짜리 샵들리에를 주문하고 한 달 안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 샵들리에에 대해 2천 5백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빛조명이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천 7백만 원이다. 단, 이 사례에 등장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위험 부담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A는 계약 이행을 믿고 개업 전단지들을 돌렸다. 이 광고에 2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한빛조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가 정한 날에 개업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지출이 되고 만다. 그 광고비는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행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① 신뢰투자라고 부른다.

만약 한빛조명이 계약을 지켜 정해진 날짜까지 샵들리에를 갖다주면 A는 이 계약으로부터 3백만 원에 해당하는 순편익을 얻게 된다. 한편 한빛조명은 이 거래로부터 3백만 원의 이윤을 얻을 것이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순편익은 이 둘을 합친 6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 건축업자 B라는 인물이 끼어들었다. 그는 샵들리에를 급하게 구하고 있어, 최고 2천 8백만 원까지 지불해도 좋으니 구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A에게 배달될 예정인 샵들리에를 발견하고 2천 4백만 원을 줄 테니 그것을 자신에게 팔라고 한빛조명에 제의했다. 만약 한빛조명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그 회사의 이윤은 7백만 원으로 늘게 된다. 문제는 계약을 위반할 때 A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에 있다. 그 회사는 계약 위반에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윤이 손해 배상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위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 사례의 경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원래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가 아닌 B가 그 샵들리에를 공급받을 때 사회적 순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입자의 순편익	한빛조명의 이윤	사회적 순편익
계약 이행 시	A: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계약 불이행 시	A: -200만 원(신뢰투자분) B: 4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그렇다면 계약법에 손해 배상의 규칙을 어떻게 정해 놓을 때 이와 같은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효율적 계약불이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시의 구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일어났을 때 다음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의 구제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기대손실의 원칙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만일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보장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신뢰투자로 지출한 것은 계약이 이행되어야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③ 신뢰손실의 원칙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애당초 그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계약을 위반하는 측인 한빛조명은 요구되는 손해 배상액이 계약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얻게 된 추가적 이윤보다 작으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 사례에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한빛조명의 이윤은 4백만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약 요구되는 손해 배상액이 이보다 작으면 한빛조명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 사례의 경우는 신뢰손실의 원칙이 효율적 계약불이행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이 이행되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사례만 보고 신뢰손실의 원칙이 언제나 효율적인 계약불이행을 가져다주고, 기대손실의 원칙은 언제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가) 사례의 내용 중 약간만 달리하여 (나) 사례를 상정해 보자. 즉 B가 그 샵들리에의 가치를 2천 4백만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빛조명에게 2천 3백만 원을 제의한 것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신뢰손실의 원칙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사례에서는 한빛조명이 그 샵들리에를 B에게 팔면 6백만 원의 이윤을 얻는데 이는 계약을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 경우의 사회적 순편익은 B의 순편익 1백만 원에 한빛조명의 이윤 6백만 원을 더한 것에서 A의 신뢰투자 지출액 2백만 원을 빼어 구한 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계약 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은 (가)와 마찬가지로 6백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한빛조명은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 손해 배상액이 계약 파기로 증가하는 이익보다 크므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신뢰손실의 원칙하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계약 파기로 증가하는 이익보다 작으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난다. 즉 이제는 기대손실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26.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추론과 해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③ 가설 검증을 통해 기존의 권위 있는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주장과 사례를 비교해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 ⑤ 개념 정의와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질문을 통해 설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7.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혈병 환우 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헌혈하는 경우
- ②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편의점을 임대하고 점포세를 받는 경우
- ③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④ 조카에게 게임기를 사 주겠다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하는 경우
- ⑤ 방학 동안 해외에 있는 친구의 집을 빌려 쓰기로 하고 비행기 표를 미리 구입하는 경우

28. 윗글에서 계약 위반 시의 구제 방법으로 ㉠과 ㉡를 채택했을 때, '한빛조명'이 'A'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은? [3점]

- |   | ㉠     | ㉡     |
|---|-------|-------|
| ① | 5백만 원 | 2백만 원 |
| ② | 5백만 원 | 3백만 원 |
| ③ | 7백만 원 | 2백만 원 |
| ④ | 7백만 원 | 3백만 원 |
| ⑤ | 7백만 원 | 5백만 원 |

29. (가)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 ② 계약불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은 B의 순편익과 한빛조명의 이윤을 더한 값이다.
- ③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의 사회적 순편익인 6백만 원보다 계약 불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이 더 크다.
- ④ 계약불이행 시의 한빛조명의 이윤은 B가 제안한 2천 4백만 원에서 상들리에 제작비 1천 7백만 원을 뺀 것이다.
- ⑤ 계약불이행 시 B의 순편익은 상들리에 구입에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2천 8백만 원에 상들리에 구입을 제안한 금액인 2천 4백만 원을 뺀 것이다.

30.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손해 배상 원칙 모두 과도한 신뢰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②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의 불이행이 효율적인데도 이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어떤 손해 배상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신뢰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과도한 계약 파기 혹은 과도한 계약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은 위험 부담에 대해 선호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화폐액의 기대치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름 우희 댓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댓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정(情)둔 오늬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애 어느 즘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흐니 도화(桃花) | 발(發)호두다  
도화는 시름업서 쇼춘풍(笑春風)호느다 쇼춘풍호느다

넉시라도 님을 혼디 너넉 경(景) 너기더니  
넉시라도 님을 혼디 너넉 경(景) 너기더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남산(南山)애 자리 보와 옥산(玉山)을 버여 누어  
금슈산(錦繡山) 니블 안해 샬향(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남산애 자리 보와 옥산을 버여 누어  
금슈산 니블 안해 샬향 각시를 아나 누어  
약(藥)든 ㅁ슴을 맛초옵사이다 맛초옵사이다

아소 님하 원디평싱(遠代平生)애 여흘술 모르옵새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나)

[A] 이화우(梨花雨) 흘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애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애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괘라

- 매창

[B] 피스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손대  
자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곧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홍당

(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獨守空房)이 더욱 싫다  
㉠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을 제 뉘러서 알리  
매친 시름 이렇저렇이라 흐트러진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입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어린 양자(樣姿)\* 고운 소리 눈에 암암(黯黯) 귀에 쟁쟁(錚錚)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듣고지고 임의 소리  
비나이다 하느님께 임 생기라 비나이다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죽지 마자 하고 백년기약  
만첩청산을 들어간들 어느 우리 낭군이 날 찾으리  
㉡ 산은 첩첩하여 고개 되고 물은 충충 흘러 소(沼)가 된다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 난다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㉔ 천금주옥(千金珠玉) 귀 밖이요 세사(世事) 일부(一富) 관계  
하라

...(중략)...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일월무정(日月無情) 절로 가니 옥안운빈공로(玉顔雲鬢空老)\*로다.

이내 상사(相思) 알으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라

㉕ 적적(寂寂) 심야(深夜) 혼자 앉아 다만 한숨 내 뱃이라  
일촌간장(一寸肝腸) 구비 썩어 피어나니 가슴 답답

㉖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라

피는 불이 일러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사랑겨워 울던 울음 생각하면 목이 멘다

- 작자 미상, 「상사별곡」

\* 양자: 옛된 얼굴.

\* 옥안운빈공로: 고운 얼굴과 머리술 풍성하던 젊은 여인이 헛되이 늙음.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임을 향한 애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 ② 화자와 임 사이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임 소식이 없어 답답해 하는 화자의 일방향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상심에서 벗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임에 대한 추억 또는 원망의 감정이 가장 고조되는 시간을 '밤'으로 설정하고 있다.

32.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어려 주글만덩'과 (나)의 '천 리(千里)에'는 과장적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심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아련 비올하'와 (다)의 '피는 불이 일러나면'은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의 '보내노라 님의손대'와 (다)의 '듣고지고 임의 소리'는 어순 도치를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의 '추풍낙엽'과 (다)의 '오동추야'는 시간과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새 잎 곧 나거든'과 (다)의 '일촌간장 구비 썩어'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33.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2연에서 '도화'는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② (가)의 3연에서 '넉시라도 님을 혼디'는 이별 전에 임과 화자가 함께 약속한 것이다.
- ③ (가)의 5연에서 '옥산'과 '금슈산'은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상상해 낸 공간이다.
- ④ (나)의 [A]에서 '외로운 꿈'과 '오락가락'은 임과의 재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B]에서 '피사버들 가려 꺾어'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34. (다)의 ㉔~㉖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㉔: 작품 전체의 내용과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 ② ㉕: 산과 물의 속성을 활용해 화자의 고립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㉖: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㉕: '적적', '혼자'는 '한숨'의 의미와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 ⑤ ㉖: 임을 향한 화자의 연정을 과장되게 나타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해 (가)의 형식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전춘별사」는 신라와 고려 시대 시가 갈래의 형식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기존 시가 갈래로는 분연체이면서 '위~경(景) 귀 엇더흐니잇고'가 반복되는 경기체가, 감탄사나 3단 구성이 보이는 10구체 향가, 시조, 향가계 고려 속요, 그리고 분연체와 후렴구가 두드러진 고려 속요 등이 있다. 향가계 고려 속요에는 「정과정」과 「도이장가」 2편이 있는데, 이중 '넉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오'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과정」은 충신연주시사의 시초이다.

- ① 제2연과 제5연에는 시조의 4음보 율격이 드러나 있다.
- ② 제2연과, 반복되는 부분을 뺀 제5연은 시조의 3단 구성과 유사하다.
- ③ 제3연의 '넉시라도 님을 혼디'는 향가계 고려 속요에도 등장한다.
- ④ 제3연에서 '녀닛 경(景) 녀기더니'는 경기체가의 양식적 특징과 유사하다.
- ⑤ 제6연의 '아소 님하'는 고려 속요에서 연과 연 사이에 발견되는 후렴구이다.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세기에 인간은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40억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자연 선택이라는 구(舊) 체제가 오늘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살아 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해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제공하는 ㉠ 생명 공학을 통해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는 기술로는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등이 있다.

사이보그 공학에서 말하는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로, 생체 공학적 의수(義手)를 지닌 인간이 그 하나의 예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생체 공학적 존재이다. 타고난 감각과 기능을 안경, 심장 박동기, 의료 보장구, 그리고 ㉡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신체에서 이러한 보완기를 떼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 욕구, 성격,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는 비유기물적 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 역시 사이보그로 변하는 중이다. ‘망막 임플란트’라는 회사는 시각 장애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망막에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환자의 눈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크로칩을 활용해 광세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세포는 감각 수용체로서, 눈에 비치는 빛을 흡수해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전기 신호는 망막의 손상되지 않은 신경 세포로 전달되고, 이 신호는 뇌로 전송된다. 뇌는 이 전기 신호를 번역해 무엇이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현재 이 기술은 환자들이 방향을 정하고 문자를 식별하며 심지어 얼굴을 인식하게 해 줄 정도로 발전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다.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면, 혹은 여러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 낸다면? 만일 뇌가 집단적인 기억 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기억, 의식, 정체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상황이 되면 가령 한 사이보그가 다른 사이보그의 기억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기억하게 된다. 뇌가 집단으로 연결 되면 자아나 성 정체성 같은 개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꿈을 좇을까? 그 꿈이 자신의 기억 속이 아니라 모종의 집단 기억 저장소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자연 선택의 법칙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인데, 유전자의 진화를 모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래머가 창조자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학습, 진화할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꿈을 꾸다. 이 경우 프로그래머는 원동력이자 최초로 움직인 자가 되겠지만, 그 피조물의 진화는 아무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다. 프로그램 작성자를 포함해 어느 누가 마음속에 그렸던 방향과도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원형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식자인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는 한편, 사이버 공간 내의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수없이 복제하며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간다. 그 복제 과정에서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나면, 컴퓨터화한 돌연변이가 된다. 어쩌면 애초에 인간 엔지니어가 무작위적 복제 실수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 찢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작위적 오류 탓일 수도 있다. 우연히 이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컴퓨터에 침범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백신 프로그램까지 피하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면, 그것은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사이버 공간은 새 바이러스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일부러 설계하지 않았지만, 무기물로서 스스로 진화를 거친 개체들은 과연 살아 있는 피조물일까? 그 답은 ‘살아 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이 바이러스가 유기체 진화의 법칙과 한계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진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3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점]

- ① 컴퓨터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 ② 인간은 성격과 정체성을 바꾸는 비유기물적 속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 ③ 컴퓨터는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낼 뿐,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④ 망막의 신경 세포는 외부의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낸다.
- ⑤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한 결과,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37.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곰팡이 유전자를 변형해 인슐린을 생성한다.
- ② 대장균 유전자를 조작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
- ③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컴퓨터 전기 회로를 컴퓨터 안에 심는다.
- ④ 메머드에서 복원한 DNA를 코끼리 DNA를 제거한 코끼리 수정란에 삽입해 자궁에 넣는다.
- ⑤ 벌레에서 추출한 유전 물질을 돼지에 삽입해 해로운 지방산을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으로 바꿔 준다.

38.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을 사이보그 공학의 일부로 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생리 기능과 면역계,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② 인간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갖게 된 물리적 힘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의 뇌가 담당해야 하는 자료 저장, 처리의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 ④ 전기적 명령을 해석할 수 있는 생체 공학용 팔의 원시적 형태물이기 때문이다.
- ⑤ 인간의 뇌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만들어 내는 비유기물 공학에서 주요하게 연구하는 대상은 독립적인 진화가 가능한 ( ㉡ )이다.

- ① 전기 신호                      ② 신경 세포
- ③ 뇌 인터넷                    ④ 컴퓨터 프로그램
- ⑤ 컴퓨터 전자 회로

40. 문맥상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작(製作)했기              ② 구성(構成)했기
- ③ 조직(組織)했기              ④ 개발(開發)했기
- ⑤ 활용(活用)했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노총각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에서 외롭게 지냈다. 젊은 남녀가 절에 와서 소원을 비는 날, 양생은 법당에서 자신에게 좋은 배필을 달라고 소원을 빌며 부처와 저포 놀이 시합을 하여 이긴다. 양생은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며 배필을 얻게 해 달라는 내용의 축원문을 읽던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절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 왔다. 여인이 말했다.

“애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여종은 “네.”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세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 울타리에서 개들이 짖어 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나?”

양생이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 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물었다.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본래 이렇지요, 뭐.”

여인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이슬 젖은 길 /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 없네.

[A] 양생 역시 장난으로 이런 한시(漢詩)를 읊었다.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거리니  
저 기수(淇水)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魯)나라 길 활 트여 / 문장(文姜)이 쏜살같이 달려가네.

한시를 읊조리고 나서 걸걸 웃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개녕동에 도착했다. ㉡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가렸다. 그 속에 집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중략)…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 ㉢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을 하나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저희 부모님이 보련사에서 제게 밥을 주실 거예요.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양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과연 명문가 여인의 대상(大祥)\*을 위한 행차가 보였다. 이들 일행의 수레와 말이 길을 가득 메운 채 보련사에 올라가다가 선비 하나가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 아씨와 함께 묻은 물건을 누가 훔쳐서 갖고 있사옵니다.”

주인이 말했다.

“뭐라고?”

하인이 말했다.

“이 선비가 아씨의 그릇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주인이 말을 멈추고 사정을 묻자, 양생은 앞서 여인과 약속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여인의 부모가 놀라 한참을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외동딸이 노략질하던 왜구의 손에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임시로 개녕사 골짜기에 매장했구려. 차일피일 하다 지금껏 장사를 지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소이다. 오늘이 벌써 세상을 뜬 지 두 돌이 되는 날이라 절에서 재(齋)를 베풀어 저승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참이랴오. 청컨대 딸아이와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함께 절로 와 주셨으면 하오. 부디 놀라지 말아 주었으면 하오.”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절로 갔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 여자인 사람이 여종과 함께 사뿐히 걸어오고 있었다. 과연 기다리던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기쁘게 손을 잡고 절로 향했다.

여인은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하고 하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여인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의 눈에만 여인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음식을 함께 드시지요.”

양생이 여인의 부모에게 그 말을 전하자, 부모는 시험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해 보라고 했다. 수저 소리만 들릴 따름이었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와 똑같았다. 부모는 깜짝 놀라 마침내 양생더러 장막에서 함께 자라고 권유했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어 보려 하면 그때마다 말소리가 똑 그쳤다. 여인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B] “제가 규범을 어겼다는 건 저 역시 잘 알지요.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어 예의범절을 조금은 알고 있사오니, 「건상(褰裳)」\*과 「상서(相鼠)」\*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 줄 모르지 않아요. 하오나 오랜 세월 죽대밭 너른 들판에 버려진 채 살다 보니 마음속에 있던 정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다잡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절에서 소원을 빌고 불전(佛殿)에 향을 사르며 제 기구한 일생을 한탄하던 중에 문득 삼세의 인연을 이루게 되었지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나무 비너를 꽃고 백 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음식 시중에 옷 시중으로 평생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넘을 수 없군요. 기쁨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슬픈 이별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별하고 나면 다시 만나긴 어렵겠지요. 이별할 때가 되니 너무도 서글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윽고 여인의 영혼을 떠나보내는데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2년 상을 마치고 탈상(脫喪)하는 제사.

\* 「건상」: 『시경』에 실린, 자유분방한 여인의 마음을 읊은 노래.

\* 「상서」: 『시경』에 실린,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풍자한 노래.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인은 양생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 ② 여인은 양생에게 자신의 거처를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 ③ 부모는 양생을 만나기 위해 일행을 이끌고 보련사로 향했다.
- ④ 양생은 아침 일찍 지나가는 이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했다.
- ⑤ 양생은 이별의 날에야 여인이 장례 후 저승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42. <보기>를 참고해 [A]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애정 전기(傳奇) 소설은 서사와 서정의 교직(交織)이 다른 갈래보다 더 두드러진다. 작품에 한시(漢詩)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때 한시는 여러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분위기 조성, 감정 전달, 사상 전달, 대상 묘사는 물론, 등장인물 간 대화를 대신하거나 남녀 간 만남의 매개 역할을 한다.

- ① 등장인물 간 대화를 대신하고 있다.
- ② 남녀 주인공의 감정을 위로하고 있다.
- ③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을 매개하고 있다.
- ④ 경물을 묘사하여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이 혼자 살며 부처와 저포 놀이까지 한 것으로 보아 양생의 외로움은 여인과 만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 ② 여인의 부모가 양생이 딸과 함께 절로 와 주기를 청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③ 여인의 부모는 수저 소리를 듣고 양생을 믿게 되어 그에게 장막에 머물 것을 권했다.
- ④ 여인이 어릴 적부터 『시경』과 『서경』을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명문가 규수로서 소양을 갖춘 인물이다.
- 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을 수 없어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44.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은 공간 묘사를 통해 여인이 처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소재를 활용하여 이어지는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은 하인의 말을 통해 양생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은 등장인물이 이승의 존재가 아님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B]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명혼(冥婚) 이야기를 통해 결핍 상태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픈 남녀 주인공의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양생이 간절히 바라던 배필이 귀신이었다는 사실은 양생의 고독이 이 세상에서 해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③ 인간적 욕망으로 원통한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나 실현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극적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여인이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양생과의 결연을 시도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고달픈 삶을 긍정하는 민중 의식을 보여 준다.
- ⑤ 양생과 죽은 여인 간에 삼세의 인연이 맺어진 것은 배필을 원했던 여인의 발원이 부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23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http://www.police.ac.kr>

※ 총 13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와 문명의 발전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과학과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환경 위기의 재앙을 낳았고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퇴행할 위험이 상존한다. **칼 포퍼**는 ‘반증주의’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우선 그는 **과학 이론**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경험적 적용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이론들은 자연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시도하지만 항상 오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경험적 적용은 이론의 예외가 되는 반증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서 만약 반증이 성립하면 그 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다. 반증은 과학 이론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모든 과학 이론은 완전하지 않으며 반증 가능성을 통해 개선되거나 폐기된다.

그러나 모든 이론의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검은 백조는 없다.”라는 가설은 “여기 검은 백조가 있다.”라는 경험적 적용을 통해 반증되지만,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가설은 여러 색깔의 백조가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반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이론은 반증 가능성이 큰 대담한 내용을 내포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포퍼는 자연의 진화처럼 과학 이론 역시 끊임없는 반증과 오류 제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포퍼는 정치 역시 반증 가능성이 발전의 조건이 된다고 본다. 그는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했지만 다수결에 의해 폭군과 독재자가 통치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는 역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는 ‘열린 사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힌 사회’로 퇴보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단힌 사회는 주술적이다. 통치자가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주술적 가치**를 통해 지배하기 때문이다. 열린 사회를 구성하는 합리주의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인정하기에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지적 겸손의 태도를 지니는 반면, 단힌 사회의 독단주의는 소수의 폐쇄된 집단만 사태를 정확히 인식한다고 전제하는 지적 오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포퍼는 역사가 어떤 일반적 법칙에 따라 정해진 목적을 향해 발전해 간다는 역사주의를 비판한다. 그에게 역사주의란 전체론, 역사적 법칙론, 그리고 유토피아주의를 합쳐놓은 사상이다. 먼저 그는 전체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전체론이 오류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국가를 구성원들 간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구성원 개개인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의 정신이나 논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는 국민이 희생되어도 국가 전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소수 집단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전체주의가 **㉔** **싹트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단편적 지식만 아는 다수가 자신이 아는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전체주의보다 낫다고 본다.

다음으로 그는 역사적 법칙이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는 수단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법칙이 독단이 되어 국민을 억압하게 된다고 역사적 법칙론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법칙에 따라 국가가 모순이 완전히 해결된 공산사회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단힌

사회로의 퇴행일 뿐이다. 포퍼는 인간의 역사를 독단적인 법칙에 따라 예언할 수 없으며, 자연의 진화처럼 사회도 시행착오와 오류 제거를 통해 변화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주의는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이상 사회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 이는 독단의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래에 실현될 최종 유토피아가 완전하면 할수록 현재의 세계는 더욱 극복해야 할 부정적 대상이 된다. 포퍼는 열린 사회에서는 유토피아처럼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아니라 현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설정된 단기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법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대신, **㉕**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 **윗글에 따를 때, ‘과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증 가능성의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다.
  - ② 오류 제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③ 가치 있는 이론은 반증을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
  - ④ 경험적 적용은 이론을 이상적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 ⑤ 이론에 논리적 모순이 없더라도 타당성이 없을 수 있다.
  
2.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판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가치이다.
  - ② 열린 사회에서는 배척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③ 사회를 무오류의 상태로 바꾸려는 가치이다.
  - ④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는 가치이다.
  - ⑤ 다수결에 따를 때는 나타날 수 없는 가치이다.
  
3. **㉔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들의 의견을 모으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② 소수 집단이라 해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③ 치열한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되지 않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④ 단기적 목적을 세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⑤ 시행착오로 인한 희생이 있어도 이상적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㉔와 의미가 통하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동(胎動)	② 준동(蠢動)
③ 활동(活動)	④ 가동(可動)
⑤ 약동(躍動)	

5. <보기>의 견해에 대해 **칼 포퍼**가 제기할 만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원기둥 모양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하자. 이후 많은 시각 장애인이 똑같이 그렇게 하여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그 가설은 반증이 소용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만진 것은 코끼리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발상이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은 한 이론적 틀에서 다른 틀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안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작은 과제들만 겨우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정치가 부딪친 문제들은 작은 과제들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의해 생기며, 따라서 정치는 사회 구조가 혁명적 과정을 통해 변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 ① 과학의 이론적 틀은 하나여서 결코 바뀌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많은 반증이 제시된다고 해서 과학의 이론적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 구조가 급격히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 ③ 이전의 과학적 틀에 따른 가설들이 새로운 가설로 바뀌는 과정은 급격하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혁명 후에는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 ④ 과학의 이론적 틀이 바뀌어도 반증을 통한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며, 혁명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독단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 ⑤ 과학의 이론적 틀은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택하는지가 중요하며, 정치적 문제의 해결책도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택하는지가 중요하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뵈던 너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켜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리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관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호개 : ‘승냥이’의 방언

\* 불술기 : ‘기차’의 방언

(나)

조국(祖國)을 언제 떠났노,  
파초(芭蕉)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鄉愁),  
너의 낮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情熱)의 여인(女人),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네의 그 드리운 치마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 ②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 ③ 장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서사적 맥락을 형성한다.
- ④ 반어의 수사적 표현으로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한다.
- ⑤ 대상의 과거 상황을 상상하여 대상의 현재 처지를 이해한다.

7. (가), (나)의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 관조적 태도
- ② (가), (나) : 공감적 태도
- ③ (가), (나) : 반성적 태도
- ④ (가) : 풍자적 태도, (나) : 숭배적 태도
- ⑤ (가) : 비관적 태도, (나) : 낙관적 태도

8. **가시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가을 무렵 두만강을 건넜다.
- ③ 봄이 오면 술막을 떠날 예정이다.
- ④ 자신의 처지에 냉소적이기도 하다.
- ⑤ 먼 길을 떠나 현재의 장소에 오게 되었다.

9. 맥락에 따라 시어 **불타는**을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불타는’과 ‘정열(情熱)’은 모두 뜨거움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남국’의 특성이므로, ‘너’가 ‘남국’을 그리워하는 까닭을 알 수 있군.
- ② 뜨거움을 뜻하는 ‘불타는’이 ‘밤이 차다’, ‘우리의 겨울’과 대립적이므로, ‘너’는 ‘밤’과 ‘겨울’에 저항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③ ‘향수(鄉愁)’를 ‘불타는’ 것으로 설정한 데서 갈등이 연상되는데 ‘샘물’은 이를 해소해 줄 수 있으니, ‘너’가 ‘나’를 필요로 하는 까닭을 알 수 있군.
- ④ ‘불타는’은 ‘향수(鄉愁)’를 낮게 하기 위한 수단이 ‘소낙비’임을 암시하므로, ‘샘물’을 발등에 붓는 ‘나’의 행동이 ‘너’에 대한 배려를 뜻함을 알 수 있군.
- ⑤ ‘불타는’의 ‘불’은 ‘정열(情熱)’과 함께 상승적 이미지를 갖는데 이는 긍정적 가치로 볼 수 있으므로, ‘너’라는 시적 대상이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1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행위 주체는 화자이지만, ㉡의 행위 주체는 청자이다.
- ②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는 ㉠의 행위로는 멀어지지만, ㉡의 행위로는 가까워진다.
- ③ ㉠, ㉡ 모두 청자에게 행위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바탕으로 한다.
- ⑤ ㉠, ㉡ 모두 행위가 실현되면 현실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그중의 중요한 원인들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 사람은 외국인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 준 것은 없으나, 다만 날만 새면 자릿속에서부터 담배를 피워 문다는 것, 아침부터 술집이 번창한다는 것, 부모를 쳐들어서 내가 네 애비니 네가 내 손자니 하며 농지거리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 겨우 입을 떼어 놓은 어린애가 엇먹는 말부터 배운다는 것, 주먹 없는 입씨름에 밤을 새고 이튿날에는 대낮에야 일어난다는 것…… 그 대신에 과학지식이라고는 소꿉 꾸미기 무거워야 밥이 잘 무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 외국 사람에게 실물로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는 사실을 골고루 보고 많이 안다는 의미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

“담바구야 담바구야…… 노이구곤 오테기루네……”  
 입을 이상하게 뽀족이 내밀었다 오므렸다 하고, 젓가락으로 화롯전을 두들겨 가며 장단을 맞춰서 콧노래를 하다가 딱 그치더니,  
 “애가 제일 잘 해요 우리는 온 지가 삼사 년밖에 아니 되었지만……”  
 하며 병병히 앉았는 **화롯불 가져온 아이**를 가리킨다.

“응! 그래? 너는 얼마나 있었길래?”  
 말담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았는 것이 어디로 보아도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숫보기로만 생각하였던 것이, 조선 소리를 잘 한다니 조선애가 아닌가도 싶다.

“에서 아주 자라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하며 담바고타령을 하던 계집애가 이때까지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 입이 재게 즉시 대답하고 나서,  
 “그렇지!”

하며 당자에게 얼굴을 들이댄다. 그 소리가 너무도 커당기 때문에 조소하는 것같이 들리었다. 일인 애비와 조선인 에미를 가졌다는 계집애는 히스테리컬하게 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샅룩하여졌다.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다는 모양이다.

“정말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기에?”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대구에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간신히 쳐들면서 대답을 한다.  
 “그래 어째 여기 와서 있니? 소식은 듣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계집애는 생글생글하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러지 않아두 누가 대구 가시는 이나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두 그것도 안 되구…… 천생 언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하며 이번에는 자기 신세를 조소하듯이 마음 놓고 커당게 웃는다.

“그럼 아버지하군 지금 헤져서 사는 모양이구나?”  
 “그야 벌써 헤졌죠 내가 열 살 적인가, 아홉 살 적에 장기(長崎)로 갔답니다.”  
 “그래 그 후에는 소식은 있니?”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 설이나 쇠고 나건 찾아가 볼 테예요”  
 하며 흑흑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도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일을 저지르고 하도 깃구멍이 막혀서 나오는 웃음 같았다.

“이무리 조선 사람이러두 길러낸 어머니가 정다운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찾아간대야 그리 반가위는 아니 할걸?”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러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옷보다는 일본옷을 입고, 딸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는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를 지나서 ㉢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칠팔 년이나 된다는 애비를 정처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제, 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없는 것보다도 ㉣그 애미가 한층 더 가없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없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돼져 버려라!’  
 (가) 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의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찾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 우중충한 남뿔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 염상섭, 「만세전」

11.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과 관계가 약한 사건들을 병치하여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이야기 속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중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들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며 논평하고 있다.

12. (가)에 드러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실의에 빠진 대상을 포용하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좌절하는 태도
- ② 어떤 기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저주하는 태도
- ③ 한심한 모습의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같이 드러내는 태도
- ④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만 대상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태도
- ⑤ 무기력한 대상을 구원하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의 실망한 태도

13. 화롯불 가져온 아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 ② 자신이 혼혈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 ③ 자신을 알보는 동료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다.
- ④ 어머니와 헤어진 상태이다.
- ⑤ 한글로 편지를 쓸 줄 모른다.

14. ㉠~㉣의 문맥적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천대를 받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
- ② ㉡: 외국 사람에게 조선인들이 실제 물건들을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
- ③ ㉢: 일본인 아버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더 이롭다는 계산
- ④ ㉣: 그 어머니는 남편과 딸에게 모두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가없다고 생각함
- ⑤ ㉤: 무덤 같은 찾간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흐리고 침침한 램프 불빛

15.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에 드러난 ‘나’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만세전』의 제목에 쓰인 ‘만세’는 3·1운동을 가리킨다. 이 작품은 3·1운동 직전인 1918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식민지 수도 서울로의 여행을 통해 일본에서 유학하던 주인공이 본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그 다음 해에 일어난 3·1운동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펼쳐진 조선총독부의 억압적인 무단통치에 온 민족이 들고일어나 독립 만세를 외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은 일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자주성을 높이 드러내었다.

- ① ‘나’는 무덤 같은 환경에 지배받았던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그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삶이라 보고 있어.
- ② 일제 총독부의 무단통치가 낳은 폐해를 목격하면서도 ‘나’는 일본에 기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 ③ ‘나’는 구습에 젖은 당시 조선인들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려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간혀 있어.
- ④ 당시 조선인들을 무덤 속 구더기로 보는 ‘나’의 관점으로는 조선에서 왜 자주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 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조선인들을 경멸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잘못이기에 ‘나’는 일본인들이 잘못을 깨달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만 보고 있어.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학에서 유전 물질 간의 전이는 DNA가 전사를 통해 RNA가 되며 이 RNA가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형성된 단백질은 세포나 조직의 구조를 이루거나, 기능상 혹은 조절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본적인 유전 물질인 DNA의 변이가 질병의 원인일 경우 RNA와 단백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유전자의 변이를 고칠 수 있다면 단백질 이상 발현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정상 유전자를 고치는 것을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데, 그중 현재 가장 발전한 것이 ㉠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시스템이다.

세균과 고세균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반복서열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크리스퍼 시스템은 면역 반응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조작하는 유전자 치료 방법으로, 2012년 엠마누엘 샤펜티어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다루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 <사이언스>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징크핑거 뉴클레아제가 1세대 유전자 가위로 등장했고 이후 2세대 유전자 가위로 탈렌이 등장한 바 있었으나,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연계에는 세균의 후천성 면역 작동 기제의 한 종류로 크리스퍼 시스템이 존재한다. 1987년 일본에서 박테리아의 유전체 분석 과정에서 특이하게 반복되는 서열이 발견되었다. 이 서열은 일정한 간격(스페이서)을 두고 반복되었는데, 당시로는 그것이 갖는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빠르게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잊혔던 반복서열이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2002년에 세균과 고세균에서만 발견되던 이 반복서열은 크리스퍼(CRISPR)라고 명명되었다. 크리스퍼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전자도 발견되었으며, 이 유전자는 카스(Cas: CRISPR associated protein)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렇게 세균에서 구조적인 특징이 발견되자,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의 기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2005년에 스페이서 서열이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일부 동일하다는 여러 논문이 나왔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크리스퍼 시스템은 적응 면역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2007년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크리스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우선 세균 내에서 크리스퍼의 반복서열을 인식하는 트랜스활성화RNA와, 스페이서 서열과 반복서열을 포함한 크리스퍼RNA를 만든다. 만약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 정보가 스페이서 서열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그 바이러스가 침입한 경우 이를 크리스퍼RNA가 인식하고, 이 반응에 맞춰 트랜스활성화RNA와 카스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공격해 절단한다. 또한 2012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엠마누엘 샤펜티어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의 연구를 통해 세균 내에 따로 존재하는 트랜스활성화RNA와 크리스퍼RNA를 하나로 이어 만든 가이드RNA에 카스 단백질을 넣으면 세균의 크리스퍼 시스템의 모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세균 내 스페이서 서열이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게 스페이서 서열 대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의 서열을 넣으면 원하는 유전체를 자를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듬해에는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에서도 이 크리스퍼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크리스퍼 시스템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을 통해 동식물의 생산량과 안정성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전자 드라이브, 곧 인간이 아닌 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 구성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 모기 등을 멸종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 윤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유전자 치료를 통해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크리스퍼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고 유전자 변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래 생명 과학이 우생학적 편견 같은 잘못된 가치관과 만났을 때의 문제를 보여준 영화 <가타카>(1997)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 편집의 경계 기준이 단지 기술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생명 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 밑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속성들을 나열한 후, 그것을 통일된 구조로 종합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정의한 후,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한 후, 대상이 그것에 부합함을 설득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세부적인 요소를 분석한 후, 그 전체적인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대상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후,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17. 밑글에서 밝힌 사건의 순서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보기>

- ㉠ 세균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특정한 반복 염기서열을 크리스퍼로 명명
- ㉡ 크리스퍼 시스템과 적응 면역의 관련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증명
- ㉢ 박테리아 유전체에서 일정한 스페이서를 둔 서열 발견
- ㉣ 인간의 유전자에 크리스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8. 밑글에 따를 때, ‘크리스퍼 시스템’의 핵심적인 작동 기제는? [3점]

- ① 크리스퍼RNA와 트랜스활성화RNA의 결합
- ② 가이드RNA에 의한 스페이서 서열의 절단
- ③ 트랜스활성화RNA에 의한 크리스퍼RNA의 복제
- ④ 가이드RNA와 카스에 의한 표적 염기서열 절단
- ⑤ 트랜스활성화RNA와 크리스퍼RNA에 의한 표적 염기서열의 복제

19. ㉠의 의의를 진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처리 방법이다.
- ② 고등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증명된 방법이다.
- ③ 생명 윤리 차원에서 우생학적 편견을 안고 있는 방법이다.
- ④ 식량 증산을 위한 산업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다.
- ⑤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유전자 치료 방법이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전에 따르면, ‘구독’은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으로 풀이되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엇인가 ‘구독’한다고 할 때에는 주로 이 뜻을 떠올렸다. 하지만 요즘 사전에서는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 가입, 모금, (서비스) 사용’으로도 정의한다.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구독 서비스는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독 경제가 소유에서 이용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1913년 자동차 대량생산을 위해 ‘포드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지난 백여 년간 우리의 주된 소비 방식은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단순했다.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 성장으로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늘면서 소유가 주는 의미는 각별해졌다. 큰 집, 고급 승용차, 고가의 보석,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이 거둔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소비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소유는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소유는 소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

책을 예로 들면, 소장 자체를 목적으로 책을 사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히고 정서적 풍요를 누리며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과 긴 시간의 기다림과 추가적인 보관 공간의 부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바탕이 마련된다.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구독을 통해 책을 읽는 각자의 목적이 충족될뿐더러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책과 관련된 경험이 여전히 풍부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목적 달성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에 주목하는 경제 모델이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건네주고 소비자가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관계가 일단 완성되는 반면, 구독은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그 관계가 지속된다. ㉢

오늘날 구독 경제가 하나의 주요한 경제 모델로서 확산된 데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한 기술적 발전의 기여가 크다. 판매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층화된 영업소와 영업사원이 있다. 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일방향성이라는 소통적 특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의 욕구와 불만을 후속 판매에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소유를 전제로 한 이러한 경제 모델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기술이나 콜드 체인 기술 같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구독 서비스의 등장을 통해 기업이나 판매자가 소비자와 쌍방향적으로 직접 소통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특화되거나 개별화된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적 발전 외에도 1인 세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가성비를 중시하는, 혹은 이와는 달리 가격과 관계없이 높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 세대로서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도 구독 경제의 규모를 키

우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

구독 경제는 소비 주체가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운다.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판매자는 발전할 수 있고 구독 경제 또한 성장한다. 그렇기에 판매자인 유통 회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판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에 나선다. 구독 경제에서 충성 고객이 되는 소비자들은 흔히 ‘최우수 고객’으로 불린다. 그들에게는 어느 고객이 누리는 혜택에 더하여 배타적이고 고객 특화적인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무료 혜택이 함께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자격을 갖게 된 소비자는 구독료가 비싸더라도 구독 서비스에 충성한다. 판매자 또한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료에 비해 훨씬 비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지출을 감수할 수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반복된 구독에 의해 생산되는 구독 정보를 구독 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평가 및 예측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비자 정보까지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진출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독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의 계약 기간을 조건으로 한다.
- ② 구독 경제에서는 상품을 위한 비용 지불 이후에도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지속된다.
- ③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됨으로써 판매자는 특정 소비자에 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④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 소비 경향은 구독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 ⑤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구독 서비스가 선택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값싼 구독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21. 윗글에 따를 때, 판매와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가 갖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의 독점적 사용
- ② 상품의 저렴한 가격
- ③ 상품의 높은 품질과 명성
- ④ 유통 채널의 직접성과 쌍방향성
- ⑤ 소비 수요를 고려한 상품 생산과 제공

22. 윗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에는 소유를 목적으로 한 소비는 사라질 것이다.
- ② 구독 경제는 오늘날 경제에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 ③ 구독 서비스의 활성화는 세대 구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구독 서비스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⑤ 소비자의 구독 정보는 해당 구독 서비스 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25. 윗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없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구
- ② TV 토론에 나와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원인이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토론자
- ③ 전투에 앞서 부대원들에게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조국과 나는 한몸이라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연설하는 부대장
- ④ 학교의 유구한 전통과 진학 성과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명문대에 합격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매주 훈시하는 교장
- 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하도록 지속적으로 세뇌하는 신흥 종교의 교주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주로 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된다.
- ② 피해자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자책한다.
- ③ 강한 권력 관계로 인해 불평등한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④ 가해자는 친밀함으로 위장된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 ⑤ 피해자의 동료들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가스라이팅의 동조자가 되기도 한다.

27.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밀감이 커지면서 권력 거리도 커지는 것
- ② 가스라이팅이 지속될수록 가스라이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 ③ 가스라이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가스라이터에게 더 의존하는 것
- ④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수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커지는 것
- ⑤ 피해자와의 서열의 경계가 뚜렷해져서 가스라이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늘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혼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롭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뵈기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 고열(春寒苦熱)은 엇디호야 디내시며  
 추일 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뵈 네와 궂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 정철, 「속미인곡」

(나)

어화 괴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옴노라  
 초경(初更)도 거원디 괴 엇지 와 거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호기 구차(苟且)호 줄 알건만논  
 쇼 업손 궁가(窮家)애 헤염 만하 왓삽노라  
 공호니나 갑시나 주업죽도 호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玉脂) 읍(泣)게 꾸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호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호고 큰 언약(言約) 호야거든  
 ㉣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호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호면 혈마 어이할고

- 박인로, 「누항사」

(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뭇뭇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등글등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라  
 ㉥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28.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다) 모두 대화체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원통함의 정서가 공통된다.
- ③ (가)와 (다)는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주제를 선명히 하고 있다.
- ④ (가)에 비해 (나)는 화자의 경제적 궁핍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화자가 일상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29. <보기>와 (가)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더 엇디햐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 디 삼 년(三年)이라  
 연지분(臙脂粉) 잇니마는 놀 위햐야 고이 홀고  
 막음의 띠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정철, 「사미인곡」

- ① (가)는 ‘님’과의 이별을, <보기>는 ‘님’과의 재회를 그려낸다.
- ② (가)는 ‘님’에 대한 걱정을, <보기>는 화자의 현재 처지를 나타낸다.
- ③ (가)는 슬픔과 자책의 감정을, <보기>는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④ (가)는 정중하고 우아한 태도를, <보기>는 경박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인다.
- ⑤ (가)는 고유어와 고사성어를, <보기>는 한자어와 한시구를 주로 사용한다.

30. (나), (다)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다)는 고상한 취향이 나타나 있다.
- ② (나)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다)는 공간의 배치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③ (나)는 당시의 음식이 소재로 쓰였고, (다)는 가사노동의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④ (나)는 상징적, 역설적인 표현을, (다)는 감각적, 직설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 ⑤ (나)는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서사적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31. ㉠,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화자의 내면적 욕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상대의 생각과 태도를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상대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기능을 한다.
- ④ 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상대의 발화를 이끌어내어 주제가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② ㉣: 화자가 예전에 ‘님’을 모신 적이 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 화자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⑤ ㉤: 자녀 양육과 시집살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란이 말했다.

“듣자 하니 특재라는 자객이 사람 죽이는 것을 주머니 속에서 물건 꺼내듯 한다고 하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을 주어 밤에 들어가 길동을 해하게 하면, 상공이 아신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사오리니 부인은 다시 생각하소서.”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차마 못 할 바이나,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요, 셋째는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너의 계교대로 행하라.”

초란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특재를 불러 이 말을 자세히 이르고 오늘 밤으로 급히 행하라 하니, 특재가 응낙하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길동은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면 잠시도 머물지 못할 일이지만 상공의 엄명이 중하므로 어찌할 길이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보며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가 세 번 울고 가는 것이었다. 길동이 괴이하게 여겨 혼자 말하기를,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지금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도다.”

하고, 잠깐 팔괘를 벌여 점을 쳐 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고 둔갑법을 행하여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진언을 외우니, 홀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집은 간데없고 ㉠ 첩첩산중(疊疊山中)에 풍경이 거룩했다. 특재가 크게 놀라 길동의 조화가 신기함을 알고 비수를 감추고 피하고자 하니,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층암절벽이 앞을 가리니 ㉡ 진퇴유곡(進退維谷)이었다. 사방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네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하면 어찌 하늘의 재앙이 없으리오?”

소년이 진언을 외우니 홀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돌이 날렸다. 특재가 정신을 수습하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 하고 달려들며 큰소리로 말했다.

㉢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초란이가 무녀, 관상녀와 함께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오?”

특재가 칼을 들고 달려드니 길동이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재의 칼을 빼앗아 들고 크게 꾸짖었다.

“네 재물을 탐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을 죽여 후환을 없애리라.”

길동이 한번 칼을 드니 특재의 머리가 방 가운데로 떨어졌다.

길동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그날 밤 바로 관상녀를 잡아 특채가 죽은 방에 들이밀고 꾸짖기를,

“네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초란과 더불어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고 칼로 베니,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오.

- 허균, 「홍길동전」

(나)

일귀 왈,

“적실히 그러하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노라.”

한담이 옳다 하고, 그 날 삼경에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나졸 십여 명을 차출하여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 놓고 화심에 불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하니라.

이때에 장 부인이 유 주부를 이별하고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삼경에 홀연히 곤하여 침석에 졸더니 어떠한 한 노인이 홍선(紅扇) 일 병을 가지고 와서 부인을 주며 왈,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졌다가 화광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南天)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광 중에 고훈이 되리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놀라 깨어 보니 ㉠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충렬이 잠이 깊이 들어 있고 과연 홍선 한 자루 금침 위에 놓였거늘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워 앉히고 안절부절하며 잠도 못 자던 차에, 삼경이 당하매 ㉡ 일진광풍(一陣狂風)이 일어나며 난데없는 천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거각이 일시에 무너지고 전후에 쌓인 세간 ㉢ 추풍낙엽(秋風落葉) 되었도다. 부인이 창황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광이 충천하고 재만 땅에 가득하니 구산(丘山)같이 쌓인 기물 화광에 소멸하였으니 어찌 아니 망극하라.

사경이 당하매 인적이 고요하고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거늘 문으로 못 가고 담장 밑에 배회하더니, 어슴푸레한 달빛 속으로 두루 살펴보니 중중(重重)한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다만 물 가는 수춧구멍이 보이거늘 충렬의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복지(伏地)하여 나올 제, ㉣ 겹겹이 싸인 담장 수채로 다 지나 중문 밖에 나서니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 돌에 긁히어서 백옥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33. (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적대자 측이 주인공의 부모 상봉을 방해한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주인공 측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나타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주인공 측과 적대자 측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④ (가)는 주인공의 내면적 고뇌, (나)는 주인공의 행동과 태도가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 ⑤ (가)는 적대자 측의 주인공 측에 대한 공격, (나)는 주인공 측의 적대자 측에 대한 포용이 나타난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의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영웅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진 소설들을 말한다. ‘고귀한 혈통—비정상적인 출생—비범한 능력—어릴 때 버려짐—구출 및 양육자의 도움—성장 후의 위기—승리와 성공’의 서사적 구조로 짜여 있다.

- ① 영웅이 애초에 고귀한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 ② 영웅이 당하는 고난의 동기가 비정상적인 출생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 ③ 비범한 능력의 영웅이 고난 중에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 ④ 영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보조 인물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과정이다.
- ⑤ 최종의 성공에 이르기 위해 영웅이 역경에 처하여 고난을 겪는 과정이다.

35.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특채의 재물 욕심을 꾸짖는 이유가 되었다.
- ② 특채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댄 것이다.
- ③ 특채가 이전의 상황에 거짓을 덧붙여 말한 것이다.
- ④ 특채와 길동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중에 나온 말이다.
- ⑤ 이후에 길동이 하는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을 강조하여 그리고 있다.
- ② 사건 전개상 이후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이 들어 있다.
- ③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 있다.
- ④ 평상시의 모습에 대조하여 인물의 현재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독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37.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 ②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 ③ ㉤: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듯이 종잡을 수 없는 말
- ④ ㉠: 한바탕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
- ⑤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애가 오로지 의료나 복지의 문제로만 취급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를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로 재공식화하는 작업은 19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장애인과 장애 단체들은 여러 문제 중에서도 특히 거주 시설로의 수용,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강요된 빈곤 등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화하여 운동하였다. 이러한 ㉠ 장애인 운동은 다시 장애에 대한 급진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장애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 활동의 주류로부터 배제하는, 당대의 사회 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하는 활동의 제한과 수많은 불리함이 손상 자체에서 야기된 것보다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 간주되어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열렸다. 의료적, 복지주의적 담론들 내의 장애 개념에 대해 ㉡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가 사회 제도의 결과라는 ㉢ 사회적 모델론의 개념은 장애학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운동에 공감하는 장애 단체들을 불러 모으는 호각(號角)이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모델을 접했을 때 그 효과는 계시적이고 해방적이었으며, 그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초래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주거, 교육, 고용, 교통, 문화·여가 활동, 보건·복지 서비스,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만들어 내는 장벽들이 시야에 들어와 장애인 운동이 다면화되었다.

당대의 사회 구조와 관행에 의해 부과된 활동의 제한으로서 장애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답은 산업 자본주의의 등장에 있다. 영국에서 18세기 말부터 임노동 관계가 점점 더 대규모 산업과 연결되면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경제 활동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공장의 장시간 노동에 표준화된 숙련도·속도·강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들 중 다수는 노동력을 팔 수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의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일반화된 상품 생산 경제에서 배제되었다. 19세기 동안 대규모 산업이 소규모 매뉴팩처와 소상품 생산을 잠식함에 따라 그들의 의존성은 공고화되었다. 20세기에 장애인들이 경험했던 배제와 의존성은 자본주의의 초기에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강등되었던 사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모델론은 장애가 초역사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회 현상이 아니며, 특정한 역사적 시점의 사회적 관계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장애란 언제나 어떤 유형의 '제한된 활동'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을 넘어서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다르게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모델론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변화된 양상들을 다룰 수 있도록 이론적 분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 또는 초자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경제 제도들이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근래에 들어 사회적 모델론은 그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코커는 사회적 모델이 견지하는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 누락되고, 담론은 사회 구조의 부수적 효과로 간주되기 때문

에, 행위 주체성도 담론도 사회 변화를 위한 초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보다 ㉣ 손상을 지닌 사람들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들이 장애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들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속성화된 신체적·행동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을 제약하고,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위치시키며,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사회적 모델론자들은 손상을 지닌 삶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장애학의 관심사가 아니며, 지적이고 정치적인 에너지는 장애의 좀 더 넓은 사회적 원인들을 다루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상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첫째, 사회적 모델이 손상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의 영역으로 격하한 것은, 공적·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사적인 것을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손상의 경험은 장애의 정치와 장애학 내에서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와 손상 간의 구별이 본질주의적·이원론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손상과 장애는 모두 담론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범주이고, 그중 손상은 생물학적 실재와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구성 개념이다. 셋째, 몸을 자체적 동력이 없는 물질적인 대상, 자아와 분리된 것으로 다룸으로써 손상을 생물학적 영역으로 격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손상에 대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손상의 사회학, 몸의 사회학을 추구한다.

3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70년대 이전에는 장애를 의료와 복지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 ② 사회적 모델론은 손상의 체험이 지닌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비판받았다.
- ③ 사회적 모델론은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 누락되었다는 이유에서 비판받았다.
- ④ 사회적 모델론은 초기 자본주의가 장애에 끼친 영향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 ⑤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9. <보기>의 관점에 대한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료적 모델의 관점은 장애를 손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손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장애는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고, 장애인이 사회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에게 권한과 영향력이 부여된다.

- ① 장애는 손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 ② 장애는 사회 제도에 의한 제약이다.
- ③ 장애는 손상 자체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 ④ 장애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 ⑤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40. <보기>를 ㉠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애 보조 기술이나 보조 장치에는 장애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것들이 많다. 시각 장애는 흰 지팡이를 사용할 때 더 드러난다. 발달 장애 혹은 자폐가 있는 사람이 사진이나 그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쓴다면 장애는 더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기술이나 장치의 사용으로 숨겨져 있던 장애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장애의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조 기술 낙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조 기술 사용을 꺼리거나 아예 거부하기도 한다.

- ① 장애를 구성하는 데 사회 문화적 인식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신체적·행동적 차이가 드러나기에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③ 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을 사회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 ④ 보조 기술 낙인은 장애에 대한 일종의 사회 문화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 ⑤ 보조 기술 낙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41. ㉠과 ㉡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계기적 관계이다.
- ② 양쪽의 논리가 충돌하는 상호 모순적 관계이다.
- ③ 지향하는 목적이 상반되는 상호 대척적 관계이다.
- ④ 각각의 결점을 서로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⑤ 서로의 개념과 활동을 한정하는 상호 규정적 관계이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굴 입구가 무너져 두 사람이 갇혔는데 산소가 모자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한 방안은 1)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2) 그냥 있거나, 3)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 이 세 방안은 다른 윤리적 입장을 드러낸다. 2)는 피동적으로 운명에 맡기는 운명주의의 입장이지만, 사람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1)이나 3)을 시도할 것이다. 이때 1)은 ㉠ 윤리적 이기주의로, 3)은 ㉡ 윤리적 이타주의로 부른다.

윤리적 이타주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를 구한 경우가 전형적 사례이다. 이는 성인(聖人)의 경지라고 하겠지만, 가족을 위할 때나 익명으로 기부할 때처럼 평범한 이들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이타주의를 모두가 행할 수는 없으며, 설혹 타인을 위하러 해도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이 타인을 위한 행위가 되는지 모를 수 있고, 적절한 행위가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실현성에서 윤리적 이타주의는 큰 난점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이 본능적인 이기심을 가진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인간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된 존재이며 타인을 위한 동기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 심리적 이기주의라고 한다.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장이 심리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타당하다면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윤리 규범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가)

'이기심'이라는 용어에 대해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심리적 동기는 여섯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1)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 동기, 2)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 3)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는 합리적 동기, 4) 타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타적 동기, 5) 자신과 타인의 이익 대신 오로지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을 고려하는 의무적 동기, 6) 마음의 유덕한 성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유덕한 동기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이 가운데 2)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1)과 3)은 2)의 변형이며, 특히 3)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일 것으로 본다. 여기에 4), 5), 6)까지 불가능해야 심리적 이기주의가 타당하게 될 것인데, 5)와 6)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자기 이익이라는 동기가 반드시 숨어 있을 것이므로 2)와 같다고 보며, 4)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4)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반박에 대해 또 다른 해명을 시도한다. 4)는 겉으로는 이타적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심리적 자기만족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기에 결국 2)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한 해명은 타인을 속이거나 무시하여 정당한 몫 이상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기적이라는 말의 뜻을 '고상한 욕구 만족'이라는 뜻으로 슬쩍 대체하여 4)를 2)인 것처럼 보이게 한 궤변이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심리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윤리적 이기주의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게 된다. 그러나 윤리적 이타주의로 되돌아가도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없다면, 실현성 있는 윤리적 이기주의를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불리는 실험이 있다. 이는 공범 관계의 두 혐의자에게 범죄를 먼저 자백한 사람은 바로 석방하지만 남은 사람에게서는 5년의 형량을 부과하며,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3년을 부과한다고 제안하는 사고 실험이다. 이때 두 사람 각각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동료를 배신하고 먼저 자백하는 것인데, 이는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기 쉽겠지만 윤리적 이기주의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배신의 선택이 가장 나올까? 플러드와 드레셔는 이 같은 유형의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배신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기심이 맹목적으로 지금 당장 자신만 위하게끔 하는 경향 외에 무엇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인지 고려하면서 타인과 협력하거나 상호부조를 하게끔 하는 합리적인 경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윤리적 이기주의는 좀 더 큰 안목의 합리적인 경향으로 이기심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이기심을 긍정하는 윤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4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리 규범은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 ② 인간은 이기심을 통하여 타인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 ③ 이기심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 ④ 어떤 행위를 해야 타인의 이익이 될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
- ⑤ 성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3. <보기>의 관점에서 ㉠이 ㉡을 평가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칸트는 윤리 규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으로 '당위 가능 원칙'을 들었다. 이 원칙에서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뜻하며, '가능'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곧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해도 실천할 수 있어야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이타적인 행위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면 ㉡은 규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② 이타적인 행위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실천할 수 없기에 ㉡은 규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③ 이기적인 행위에도 이타적인 동기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은 규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④ 이기적인 행위든 이타적인 행위든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이기에 ㉡처럼 규범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 ⑤ 이타적인 행위는 이기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할 덕목이므로 ㉡처럼 규범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44. <보기>는 (가)에 제시된 동기들의 사례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한 ㉢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악의적 동기: 재판에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거짓 증언을 함
- ㉡ 합리적 동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놀이 공원에 가고자 함
- ㉢ 이타적 동기: 연인과 헤어진 동료에게 위로차 식사를 대접하고자 함
- ㉣ 의무적 동기: 말기 암 환자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
- ㉤ 유덕한 동기: 길거리에 쓰러진 할머니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자 함

- ① ㉠: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얻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 ② ㉡: 자신의 즐거움이라는 이익을 보려 한 것이 우선일 것이며, 친구의 즐거움은 부수적일 것이다.
- ③ ㉢: 동료에게 자신이 인간적임을 드러내는 만족감을 느끼려 했을 것이다.
- ④ ㉣: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환자에게 죽음에 대비할 시간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 ⑤ ㉤: 할머니를 돕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보다 할머니를 외면함으로써 받을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45. ㉢의 입장에서 <보기>의 '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는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차를 운전한다. 그는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통 규칙을 지키면서도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데에 관심을 쏟으면서 운전한다. 결국 그는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한다.

- ① '그'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믿었으니까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거야.
- ② 원래부터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예정된 운명이었으니까 '그'가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야.
- ③ '그'가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한 것이 의도치 않게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 거야.
- ④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더라도 사정이 그다지 바뀌는 것은 없기에 '그'만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야.
- ⑤ '그'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해서 안전하게 운전했으니까 사고가 난 것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익을 거둔 거야.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24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http://www.police.ac.kr>

※ 총 13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초반부터 의학 분야에서는 실험과학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해야만 의학이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었고, 의학을 실험실에 접목하려는 실험실 의학이 체계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 병실에서의 우연적이고 소극적인 관찰보다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19세기 초반의 실험실에 기반을 둔 의학 모델은 유스투스 리비히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기센 대학의 화학 교수로 일하며 생물학적 기능을 선천적인 생리적 활동의 소산으로 다루기보다 신체 내부의 화학적, 물리적 과정의 결과로서 연구하면서 의학 연구에 화학 연구를 결부시키는 전통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비슷하게 클로드 베르나르도 실험실 과학을 프랑스 의학의 일부분으로 승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의학 교육과 연구에서 실험과학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질병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실험실 연구 덕분에 1830년대 이후로 세포가 핵과 그 외의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썩은 고기나 고여 있는 물에서 단순한 생물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자연발생설’에 관한 해묵은 논쟁은 별개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덮지 않고 식탁에 고기 조각을 방치하면 며칠 안에 구더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파리가 낳은 알에서 구더기가 부화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그렇다면 구더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시기 과학자들에게 가장 쉬운 설명은 영양분이 공급되는 환경에서 이 생물들이 일종의 화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었다. 이는 ㉡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 해석이었으며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1850년대 후반부터 자연발생 여부를 두고 벌어진 ‘파스퇴르-푸세 논쟁’은 실험 방법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사건이었다. 화학자로서 훈련이 되어 있던 파스퇴르는 다양한 화합물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데 능했고, 포도에 효모를 섞어 와인을 만들거나 효모를 넣어 빵을 부풀리거나 하는 발효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발효를 효모가 반응속도만 높이며 그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촉매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화학적 반응으로 이해해 왔으나, 파스퇴르는 발효가 포도나 밀가루 반죽의 당분을 먹고 살아가는 효모 때문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상한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과정에도 다른 미생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했고, 엄밀한 실험 도구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파스퇴르와 유사한 실험을 했던 푸세의 실험에서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파스퇴르는 실험기구가 철저히 소독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자연발생이 일어났다는 푸세의 관찰은 외부 미생물에 의해 실험기구가 오염된 결과라는 것이었다. 물론 고온의 가열에도 죽지 않는 균이 존재

함을 알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미생물을 발견한 푸세의 실험 결과가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당시에 파스퇴르가 취했던 과학적 검증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이 논쟁은 파스퇴르의 승리로 끝났다. 여기에는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라는 병리학자 피르호의 중요한 발언이 당시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배경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파스퇴르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이었기 때문에 파스퇴르를 믿고 싶어 했고, 이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다. 1860~70년대에 파스퇴르는 미생물 연구를 진척시키는 동안에 질병세균설을 강력하게 옹호하였고, 이후 여러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실험 도구와 장비들의 개선은 당대 과학은 물론 의학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현미경뿐 아니라 렌즈 아래에 놓고 검사할 표본을 준비하는 도구도 크게 개선되었다. 염료처럼 작용하는 특수 화학물질인 착색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세포 구조의 특징적인 부분을 색을 입혀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다. 염색된 핵에는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은, 어둡게 염색된 여러 가닥이 보였다. 세포분열 중에는 염색체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이나 과학자들이 확인한 세포의 다른 부분은 20세기가 되어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실험 도구와 방법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실험실 의학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세기 자연발생설의 양상
- ② 19세기 실험실 의학의 정립 과정
- ③ 1850년대 파스퇴르와 푸세의 논쟁
- ④ 19세기 중반 생물학의 성과와 한계
- ⑤ 1860년 이후 파스퇴르의 미생물 연구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험을 통해서 파스퇴르와 푸세는 생물의 자연발생 여부에 관해 논쟁했다.
- ② 19세기 초반까지 과학자들은 대체로 생물의 발생을 화학적 과정으로 이해했다.
- ③ 파스퇴르는 효모가 발효 과정에서 촉매 작용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 ④ 파스퇴르는 푸세가 실험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 부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 ⑤ 실험실 의학의 중요성은 과학적 실험 방법이 마련된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했다.



3. ㉠의 진술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점]

- ① 답이 명확하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는 없다.
- ②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으로 속일 수는 없다.
- ③ 답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 ④ 최선의 답을 모른다면 차선의 답이라도 구해야 한다.
- ⑤ 답에 대한 시비가 있다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온의 가열에도 죽지 않는 균이 존재한다.
- ② 발효는 효모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이다.
- ③ 단순한 생물은 자연발생 과정으로 생겨날 수 있다.
- ④ 외부적 관찰을 통해 생물의 발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방치된 고기 조각에서 생긴 구더기는 화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879년에 파스퇴르는 우연한 일로 독성이 약해진 닭콜레라 유발 미생물을 닭에게 주사하여 면역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닭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을뿐더러 면역이 생기기도 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에 생기는 탄저병에 관한 백신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공개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즉, 백신을 주사한 양과 주사하지 않은 양에게 탄저균을 주입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양들은 거의 죽어가고 백신을 맞은 양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 ① 파스퇴르가 닭콜레라를 치료하는 데 백신을 사용한 까닭은 소독이 병균 억제에 중요했기 때문이겠군.
- ② 파스퇴르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푸세와의 논쟁에 사용했던 실험 방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겠군.
- ③ 파스퇴르는 발효나 미생물 발생 실험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에 동물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미생물과 관련지어 생각했겠군.
- ④ 파스퇴르는 같은 실험에서도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백신의 발견에서도 우연에 의존했겠군.
- ⑤ 파스퇴르가 백신의 효과를 공개실험을 통해 확인하려 한 것은 실험실 연구로는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군.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화 없던 사내의 얼굴에 비로소 어떤 심상찮은 표정이 떠오른 것은 그가 그 2백여 미터 남짓한 교도소 길목을 빠져나와 공원 입구계에 까지 닿았을 때였다.

— 새들은 하늘과 숲이 그림습니다.

공원 입구의 오른쪽으로 한 작은 가갯집이 비껴 앉아 있고, 그 가갯집 부근의 뱃나무 가지들에 크고 작은 새장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뱃나무 가지들 중의 몇 곳에 그런 비슷한 광고 문구가 씌어진 현수막이 이리저리 내걸려 있었다.

— 새들에게 날 자유를 베푸시다.

— 자비로운 방생은 당신의 자유로 보답받게 됩니다.

새장의 새를 사서 제 보금자리로 날려 보내게 해 주는 이른바 방생의 집이었다.

사내는 비로소 긴 망각의 골목을 벗어나 나온 듯 거기서 문득 발길을 머물러 섰다. 그리고는 ㉠어떤 깊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젖으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뒀다. 사내의 그 마르고 지친 얼굴 위로는 잠시 어떤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솟아 번지기까지 하였다.

(가) 사내는 이윽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가 걸어 나온 교도소 길목을 조심스럽게 한번 건너다보고 나서 그 방생의 집 쪽으로 길을 건너갔다.

마침 그때 그 길 건너 가갯집에서는 공원을 찾아온 중년의 사내 한 사람이 흥정을 한 건 끝내 가던 참이었다.

“이제 선생님께선 이 녀석에게 하늘과 숲을 마음껏 날 날개를 주신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녀석의 자유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녀석의 자유를 사신 것은 바로 선생님 자신의 자유를 사신 것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방생의 집’ 주인이 방생에 쓰일 새들의 날개에 상처를 입혀 새들이 멀리 날지 못하게 하여, 방생된 새들을 다시 수거하고서 장사에 재사용한다는 사실이 ‘사내’에 의해 밝혀진다. ‘사내’는 상처 입은 새를 구하여 고향을 향하는 길에 나선다.

“그래 어쩔거나 우리가 녀석을 떠나온 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었을 게다. 게다가 이제부터 도시엔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게 되거든. 너 같은 건 절대로 그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작자도 아마 그걸 알았을 게다. 글썄, 네놈도 그 작자가 암말 못하고 멍청하게 날 바라보고만 있는 꼴을 봐 뒀겠지. 내가 네놈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아, 그야 나도 물론 작자한테 그만한 값을 치르긴 했지만 말이다.”

맞은편 산골이계로부터 도시를 향해 길을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 패가 사내의 걸을 시끌적하게 떠들고 지나갔다.

㉡사내는 잠시 말을 끊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행을 스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가 등 뒤로 멀리 사라져 간 다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반 해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 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 널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 돈 덕분인 줄이나 알아라. 하기가 그건 내가 정말로 짐벌 당는 날까지 기어코 안 쓰고 지니려던 거였지만…… 하지만 난 후회 않는다. 암 후회하지 앗구말구. 그까짓 돈이야 몇 푼이나 된다구…… 이런 물골을 하고 빈손으로 고향 길을 찾기는 좀 뭇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구 어디 사람까지 변했나…… 아니, 아니 내 아들 녀석도 물론 그런 놈은 아니구.”

㉢사내는 제풀에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었다.

가슴속 녀석이 응답을 해 오듯 발가락을 몇 차례 꼬지락거렸다. 그 바람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녀석의 발짓을 느끼고 있던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어쨌든 잘했지. 떠나온 건 잘했어.”

사내는 다시 발길을 떼 옮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너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글쎄, 이렇게 내가 제 발로 너석을 찾아 나섰다가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거기서 겨울을 지낼 뻔했질 않았나 말이다.”

그리고 ㉔ 사내는 뭔가 더욱 은밀하고 소중한 자신의 비밀을 즐기고듯 몽롱스런 눈길로 중얼거림을 이어갔다.

“너도 곧 알게 될 게다. 우리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나서길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이다. 남쪽은 북쪽하곤 훨씬 다르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이니까. 너 아마 대숲이 있는 곳이면 겨울도 그만일 테지. 내 너를 그런 대숲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다. 너석의 집 뒤쪽에도 그런 대숲은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암 대숲이야 많구말구…… 너 그런 그 대숲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려무나…….”

사내의 얼굴은 이제 황홀한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계속 걸으면서 중얼댔다.

“너 아마 그래야 할 게다. 가없게도 작은 것이 날개를 너무 상했으니까. 이 겨울은 그 대숲에서 날개가 다시 길어 나기를 기다려야 할 게야. 내년엔 다시 날이 풀리면 네 하늘을 맘껏 날 수가 있을 때까지 말이다. 그야 너만 좋다면 너석의 집에서 이 겨울을 너와 함께 지내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네 맘은 아닐 테니까…….”

석양의 햇살이 점점 더 풀기를 잃어 갔다.

㉕ 구불구불 남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하얀 신작로 길도 먼 곳에서부터 차츰 윤곽이 아득히 흐려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에게겐 아직도 한줄기 햇살이 등줄기에 그토록 따스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한줄기 햇살이 꺼지지 않는 한 그의 눈앞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좁은 신작로 길이 그토록 따뜻하고 맑게 빛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건 차라리 사내의 가슴속을 끝없이 비취 주는 영혼의 빛줄기와도 같았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전모를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와 심리가 밀도 있게 드러나고 있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일들을 교차시켜 편집한 장면의 제시를 통해 이야기의 구성이 다각화되고 있다.
- ③ 이념에 대한 대조적 입장의 병치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이 대립적 국면으로 극화되고 있다.
- ④ 인물로 등장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통해 갈등 양상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다.

7. (가)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변화된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사건의 개연성이 부각된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의 변화가 대비되어 사건의 계기가 형성된다.
- ③ 일상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묘사되어 사건의 반전이 이루어진다.
- ④ 인물의 감정이 변화된 정황이 드러나서 사건의 위기감이 고조된다.
- ⑤ 공간적 배경의 변화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8. **너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의 연민을 부르는 대상이다.
- ② ‘사내’에게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대상이다.
- ③ ‘사내’가 몸의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사내’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사내’가 재회의 기대를 이루어 반가워하는 대상이다.

9. 문맥을 고려할 때,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마주침을 짐작하게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 ② ㉒: 지향하는 가치관이 상반된 이들의 간섭으로 자신의 여정이 방해받고 있는 장면이 연출된다.
- ③ ㉓: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잠시 들었던 의구심을 떨쳐 내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㉔: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해 가는 정황이 드러난다.
- ⑤ ㉔: 시간의 변화로 대상의 속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는 문맥이 형성된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잔인한 도시」는 도시가 주요 인물처럼 설정된 소설이다. 수감 생활의 억압된 처지를 벗어난 자유로운 새 삶에 대한 염원을 새의 방생을 통해 기원하는 선한 의지가, 방생을 부당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잔인한 인간’에게 배신당하였음을 깨달은 ‘사내’는 도시를 떠나 고향을 향하는 길에 나선다. 이 길은 ‘잔인한 도시’에 대적하여 투쟁하는 수행에 수렴되는 것이라 해도 좋다. 다만 그 싸움의 승패를 신불리 확신하기 어려운 것은, 대적의 상대가 현대 사회의 강력한 구조적 문제의 거점인 ‘도시’인 까닭이다.

- ① ‘교도소 길목’에서 ‘방생의 집’으로 향하는 ‘사내’의 심정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려는 선한 의지에 맞닿아 있겠군.
- ② ‘너 같은 건’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새’에게 이르는 것을 보면, ‘방생의 집’으로 대변된 도시의 잔인한 이면에 대한 방증을 상처 입은 ‘새’의 처지를 보고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사내’가 자기 판단이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대적한 투쟁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의구심의 혼재가 ‘새’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은 ‘새’에게 상처를 준 ‘잔인한 도시’와는 달리 ‘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사내’의 남행 길을 비추는 ‘한 줄기 햇살’이 ‘영혼의 빛줄기’와 같다고 한 것을 보면, 도시를 떠나 고향을 향해 나선 ‘사내’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엿볼 수 있겠군.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답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답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답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답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답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답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규원, 「문」

(나)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벌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화자의 행동과 관련한 감각적 경험 내용이 직접 표현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현실과 환상을 함께 경험하는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③ (가), (나) 어디에도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 (나)는 각기 상징적 표상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다.
- ⑤ (가), (나) 모두 작품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반복과 병치를 사용함으로써 리듬을 형성한다.

12.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상이 ‘우리 집’에서 ‘어느 집’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시인의 인식도 확장되고 있군.
- ②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삶의 무상함이 상징적 시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어.
- ③ 각각의 개인이 각각의 ‘집’이라 생각한다면 ‘문’이나 ‘답’, ‘벽’ 등은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소통 관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일상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대상의 여러 특징들을 성찰을 통해 발견하면서 대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군.
- ⑤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의미들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독자들이 직접 생각해 보게 하려는 까닭인 것 같아.

13. (가)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발상을 보여 주는 진술은?

- 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웃는 표정이 다르다.
- ② 어린아이의 웃음은 어른의 웃음보다 밝고 깨끗하다.
- ③ 어제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웃지 않는다.
- ④ 내가 보이는 웃음은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웃음이 선의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색할일 수도, 위선일 수도 있다.

14.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고 슬픈 것’에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 ② ‘길들은 양 언 날개’는 시적 대상이 화자를 불러내었음을 보여준다.
- ③ 섬포 전후에 배치한 ‘반짝’은 슬픔의 승화를 함축한다.
- ④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암시한다.
- ⑤ ‘날아갔구나!’는 화자가 새삼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 시의 화자는 ㉠, ㉡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 ② 각 시의 화자는 ㉠, ㉡에 대해 탐구적인 태도를 취한다.
- ③ 각 시의 화자는 ㉠, ㉡의 실체가 확인되자 절망하고 만다.
- ④ 각 시의 화자는 ㉠, ㉡을 가변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다.
- ⑤ 각 시의 화자에게 ㉠, ㉡과의 관계 형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사물이 그릇 속에 존재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인간은 사물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주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지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던져져 주어진 자리에 머무른 채 살지는 않는다. 어떤 필요에 따라 사물들을 이용하거나 대상에 대해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수행의 영역이 인간 삶의 공간에 상응한다. 이 공간은 수행의 진전 여하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다른 양태로 변경될 수도 있다.

공간은 인간 존재의 지향에 따라 의미를 얻는다. 인간은 공간 속 ‘어딘가에’, 즉 특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느 곳에 처해 있는 방식은, 그가 우연히 ‘어딘가에’ 버려졌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바로 그 곳이 자신에게 속해 있고 자신과 한 몸처럼 묶여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인간은 공간에 버려진 듯이 느낄 수도 있고 공간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공간과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고 공간을 낯설게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공간에서 공간과 맺는 관계의 변화 양상이다.

하이데거는 인간 실존이 세계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 대해 얘기한다. 던져진 상태는 인간이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그의 의지에 반하여 낯선 세계 안에 들어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있는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영역에 상응하는 세계의 지평을 넓히려고 도모하는데, 이를 ‘존재의 기획’이라 한다. 이러한 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인간은 던져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고향을 잃어 버리고 뿌리가 뽑혀 나간 우리 시대의 인간이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정확하게 본 모습이다. 이 모습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결여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대인의 특징이다.

(나)

사람들이 장소를 경험할 때는 보통 긴밀한 애착, 즉 친밀감이 생긴다. 친밀감은 특정 장소에서 ‘여기’를 알게 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가 장소에 내린 뿌리는 바로 이 애착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 애착이 포괄하고 있는 친밀감은 단지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이다.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장소와 깊은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욕구이다.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장소들은 그 속에 우리의 복잡다단한 경험이 있으며 복잡한 애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이다. 그러나 장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지는 관심 이상이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대한 전적인 관심,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것 못지않은 심오한 관심이 거기에 있다. 소중히 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런 헌신과 책임에는 하이데거가 ‘아낌’이라고 부른 것이 포함된다. 즉, 아낌이란 사물, 여기서는 장소를,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예컨대 장소를 무리하게 인간의 의지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세우거나 농사를 지음으로써 장소를 돌보는 것이 온당한 자세이다.

16. (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공간의 의미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과 공간의 일체감이다.
- ② 던져진 자리에 머무르는 행위는 사람들이 존재의 기획을 위한 주요 전략이다.
- ③ 어떤 곳에 묶여 있다고 느끼는 감각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
- ④ 공간을 고정된 사물로 보는 것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인간이 특정한 공간에 부여한 의미에는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에도 유지되는 불변의 자질이 있다.

17. (나)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다른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여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③ 용어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의 논리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개념이 잘못 적용된 사례를 들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난해한 표현을 대체할 일상적 표현을 제안한 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설하고 있다.

18. ㉠에 주목하여 추론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을 배제할 때 가능해진다.
- ② 인간이 고정불변의 사물로 규정된다는 것은 ㉠을 전제로 할 때 타당하다.
- ③ 인간이 필요에 따라 사물을 이용할 때 이미 ㉠의 방향은 결정된 상태이다.
- ④ 인간이 사물과 구별되는 속성은 ㉠과 무관하게 선형적으로 부여 받은 것이다.
- ⑤ 인간의 존재 방식과 사물의 존재 방식의 다른 점은 공간과 연관될 때 ㉠의 자질이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 세계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 ② 인간이 장소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려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 ③ 인간이 복잡다단한 삶을 이어갈 환경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 ④ 인간이 세계를 경험할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영역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 ⑤ 인간이 과거 경험을 통해 미래의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알게 되는 행위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집은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활 공동체의 근거지라는 가치를 함의한다. 가족들에게 집이란 거주 공간이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영역이다. 안정성이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정착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착을 통해 집은 물리적 공간에서 개인적·심리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안락을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집은, 가족들에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고찰하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은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집은 구성원들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적 터전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족들이 집에 함께 머무는 것은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 세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①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한 얘기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드러내는군.
- ②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공간을 돌보는 동시에 인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군.
- ③ 정착을 통해 집의 가치가 물리적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이 일정한 양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는군.
- ④ 집이 구성원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심리적 터전이라고 보는 것은 인간이 특정한 장소에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성향이 있다는 견해와 부합하는 면이 있군.
- ⑤ 가족들이 집에 함께 머무는 것이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 세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 어딘가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지대를 얻고 자기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전략적 행동이라 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데, 경제학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점기업들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된다.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 문제가 이 게임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의 분석에는 게임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규모는 시장 전체에 비해 매우 작아서 기업끼리의 상호작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뿐이어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게임이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살펴보자. 명백하게 징역 1년 형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체포되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각각 격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되었다. 중대 범죄를 시인하고 다른 사람을 주범이라 증언하면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되고 그 주범만 징역 20년 형을 받을 것이지만, 둘 다 시인하면 공범으로 8년 형씩 받을 것이라는 제안에 둘은 어떤 전략적 행동을 할까? 두 사람은 각각 자백과 침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한정된다. 이들이 받을 형량은 자신의 선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도 달려 있다.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만, 상대방이 자백할 것을 두려워하여 둘 다 자백하게 된다. ㉡

게임이론의 핵심 개념은 '최적 대응'과 '내쉬균형'이다. 최적 대응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전략을 말한다.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적의 전략이라면 이를 '우월전략'이라 하고, 둘 다 우월전략을 선택해서 다른 상태로 바뀔 유인이 없는 상황을 '우월전략균형'이라 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자백은 두 사람 모두에게 우월전략이며, 이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나타난 균형, 즉 둘 다 자백한 상태가 **우월전략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는 조건이 현실에서 완전히 충족되지는 무척 어려우며, 어느 한쪽만 우월전략을 갖는 경우도 그리 흔하지 않다. 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균형 중에는 우월전략균형 외에도 '내쉬균형'과 같은 다른 종류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적 대응의 성격을 지니는 우월전략과 달리 **내쉬균형**의 전략은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존 내쉬(John Nash)가 제안한 균형 개념의 핵심으로, 균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적어도 한쪽이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지며, 따라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에 균형이 아니다. ㉢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보듯이 과점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과점기업들의 명시적 담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파악한 다음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도 범행을 부인하리라 믿고서 침묵으로 버텼는데 막상 상대방은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자. 반복되는 다음 게임에서는 자신도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 간의 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곧 다른 기업의 보복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그렇다면 과점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경우나 불필요한 군비 경쟁 등의 경우에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점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담합에 실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

21.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임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 ② 게임이론의 연구 대상인 전략적 행동은 무엇일까?
- ③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게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게임이론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은 어떠한가?
- ⑤ 게임이론을 경제 문제의 분석에 적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접한 두 나라 간에 벌어지는 국제적인 경제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게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시장 전체의 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은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지 않다.
- ③ 담합을 통해 독점 이윤을 얻고자 하는 과점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 ④ 특정 재화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는 게임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 ⑤ 과점기업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부가 엄격히 단속하기 때문에 과점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3.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② '내쉬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상대의 전략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다.
- ③ '내쉬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대가 전략을 바꾸면 자신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
- ④ 한 대상만 우월전략을 갖더라도 '우월전략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현실에서 '우월전략균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24. 윗글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기>의 사례를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우물이 2개뿐인 마을에서 각각의 소유주 두 사람은 물 공급량 결정을 매주 토요일 만나 결정하기로 한다. 물값은 공급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며, 편이상 물을 퍼 올리는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하자. 또한 총생산량이 60갤런일 때 물값은 갤런당 60달러로 3,600달러의 최대 수입을 거두지만, 70갤런을 생산하면 물값은 갤런당 50달러로, 80갤런을 생산하면 갤런당 40달러로 점차 하락한다고 할 때 두 소유주의 물 공급량 결정은 어떠한가? 어느 한 소유주가 약속을 위반하고 40갤런을 생산하면 그 후로 둘은 모두 40갤런씩 생산하기로 하는 벌칙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벌칙만으로도 장래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주라면 아무도 한 번의 높은 수입을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마을에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빙용품 판매점 A, B 두 곳만 있다. A와 B는 각각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A와 B가 벌어들인 수익을 상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A의 선택	
		광고함	광고 안 함
B의 선택	광고함	400만원 / 400만원	300만원 / 700만원
	광고 안 함	700만원 / 3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 ① A, B 모두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A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 ② A, B 모두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B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 ③ A가 광고를 하고 B가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B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 ④ A가 광고를 하지 않고 B가 광고를 한 경우, A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갖지 않는다.
- ⑤ A, B 모두 광고를 한 경우, B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정기술이란 한 사회의 환경, 윤리, 문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지역 생태 환경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이 개념은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로부터 비롯되었다. 슈마허는 대중에 의한 생산을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기술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 집약도가 높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로 자원을 소비하는 특징을 지닌 첨단기술과 구분되고 전래부터 사용해 온 토속기술과도 구분되는 중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슈마허가 중간기술을 구상했을 때, 그것은 빈곤국의 자원과 필요에 적합하게 소규모이며 간단하고 돈이 적게 드는 기술을 의미했다.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착한 기술'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슬로건에 가까웠다. 따라서 주로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나 기술의 자주성에 초점이 맞춰진 단순한 기술, 또는 값싼 기술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구매력이 있는 상위의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 진정한 의미에서 적정기술이 될 수 있는냐는 문제의식, 곧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론적 관점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

하지만 그 이후 현지화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친화적 발전

같은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정리되어 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적정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필요와 당위성이 생겼던 것이다. 1973~1974년에 일어난 석유 파동은 사람들이 값싸고 풍족하게 여겼던 석유가 한순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오랫동안 첨단기술에 의존하여 그 속에서 편리를 추구해 왔던 사람들은 첨단기술이 정작 위기상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첨단기술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에, 지형학적 불안정, 환경 재해, 자원 고갈 같은 문제들은 모두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들이었다.

위기는 새로운 상황을 기존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 된다.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35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쓰나미 사태라든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찾아온 세계적 차원의 금융·경제 위기 등은 첨단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일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기존의 고비용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의 한계, 원자력 발전의 재난 위기 취약성, 성장 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등의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적정기술의 가치에 대해서도 재발견하게 되었다.

적정기술의 재발견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는 배경에서 ‘타이니 하우스’라는 새로운 주택 형태가 유행하였다. 10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집 형태의 타이니 하우스는 이동이 가능한 데다가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빗물과 생물을 활용하여 물을 얻는 친환경적 기술을 사용한다. 이 작은 집은 주택 담보 대출의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관심을 받아 인기를 끌었지만, 그 후로는 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널리 알려졌다. 지속적인 경제 호황을 경험하던 시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사례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적정기술의 지향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 와서 적정기술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실용적이고 자립적인 기술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작동하는 기술로서의 새로운 모색이다. 이제 적정기술은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기술, 공동체 기술, 혹은 사회 문제 해결 기술 등과 같은 새 시대의 대안적 기술과 사업 모델로서 모색될 전망이다.

**26. 밑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과 검증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개념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반된 개념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 ④ 항목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 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2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적정기술은 극빈국 국민의 삶을 구제하기 위한 원조 기술이다.
- ② 영리를 기술 개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적정기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적정기술은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위기 상황에 취약하다.
- ④ 오늘날 적정기술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⑤ 선진국이 적정기술에 새롭게 주목하는 까닭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로부터 적정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8. 밑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정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이 낮다.
- ② 저비용의 친환경적 기술로 보기 어렵다.
- ③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 ④ 대규모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 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29. ㉠에 제시할 만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책가방 없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어느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공책을 바닥에 놓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을 위해 가방 기능을 하는 책상인 ‘헬프데스크’가 제작되었다. 폐지를 모양대로 자른 뒤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이 제품은 적은 비용으로 가방이나 책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과일이나 채소 작물은 일시적으로 다량 생산된다. 이것들의 수확과 가공에는 주로 여성 노동이 투입되는데, 손으로 딱딱한 껍질을 제거하기에 긴 노동 시간과 부상의 위험이 뒤따른다. 금속과 콘크리트로 만든 ‘범용 견과 껍질 제거기’는 농촌 마을 여성들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며 판매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③ 물과 전기가 부족한 어느 시골에서는 ‘페달 펌프’가 제작되어 사용된다. 페달 펌프는 실린더를 제외하면 현지에서 나는 대나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소규모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펌프를 사용하여 농부들은 지하 6~7미터 깊이에 있는 물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 ④ 어느 시골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와 대낮에도 움막 형태의 집안은 매우 어둡다. 투명 페트병 안에 물과 표백제를 넣고 지붕의 틈새에 끼워 태양 빛을 투과하게 하면 빛의 산란으로 집안은 상당히 밝아진다. 페트병은 매우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 ⑤ 전기 사정이 안 좋은 어느 나라에서는 기부자나 투자자의 자본 및 기술 지원으로 소규모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태양광 패널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소형 가전부터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중형 가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0. <보기>에 언급된 사례가 윗글에서 설명하는 ‘적정기술’로서 적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3점]

<보기>

플레이펌프(PlayPump)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오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놀이와 전력 공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갖게 한 상품이다. 아이들이 회전목마를 돌리면서 놀기만 하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지하수를 끌어올려 탱크에 물을 채우는 장치이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 사업에 미국의 정치가와 기부자들이 동참했고,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아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에 1,500대가 넘는 플레이펌프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한때 적정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 제품은 실패한 적정기술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 제품을 설치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주민들이 먹을 만큼 지하수를 올리려면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놀이기구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①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 ②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못했다.
- ③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를 통해 모았다.
- ⑤ 기술을 구현하는 데 많은 천연 자원이 필요했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 입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때를 모르는도다 <제3수>

되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나니 <제4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건마는  
입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 진실로 입금을 잊으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워쳐 불러 이르  
기를 ㉤ 월황혼 겨워 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려 차마 못 살레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빠 가는 길시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다)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 자네 일정(一定)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짓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石橋)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회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라 동덩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都大船)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 입 계신 데 명휘(明輝)를 빌려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테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를 시적 상황으로 삼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규범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심리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3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소재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점층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의성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 주는 자연물이고, ㉤는 화자의 희망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다.
- ② ㉡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고, ㉤는 화자의 바람을 실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이다.
- ③ ㉡, ㉤는 모두 화자의 불만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④ ㉡와 달리 ㉤는 화자의 추억을 촉발하는 요소이다.
- ⑤ ㉤와 달리 ㉡는 화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존재이다.



3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버지와 임금을 향한 뜻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다짐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 : 충성과 효도를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화자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 :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함께 진술된 외로운 상황에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 ④ ㉣ : 상대방이 못 오는지 안 오는지 묻는 화자의 어조에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⑤ ㉤ : 밝은 달빛을 빌려 임이 계신 곳을 비추려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의 안위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엿볼 수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 유행한 십이가사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와 달리 정제된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가창 현장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특정한 어구의 반복, 장황하다고 느낄 정도의 구체적 묘사 등은 가창 현장의 즉흥적이고 흥겨운 유희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들이다. 특히 대중의 통속적 흥미와 관심에 맞추기 위해 널리 알려진 소설, 시조, 한시 등으로 노랫말을 구성하다 보니, 작품 내용과 무관한 어구가 삽입되고 노랫말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 ① ‘이 아해야 말 듣소’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가창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적 효과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는 구절을 제시한 것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의 내용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이겠군.
- ③ 노랫말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정서의 ‘지어자 좋을시고’를 이용한 것은 가창 현장에 모인 대중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춘수가 만사택’, ‘하운이 다기봉’, ‘추월이 양명휘’라는 한시 구절을 인용한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대부 가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나타낸 것은 가창 현장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겠군.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 부인이 상서를 심하게 꾸짖으니 상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쭙기를,

“누님께서 주관하신 줄 몰랐나이다. 예전에 양왕(梁王)이 구혼하여 허락했는데, 요즘 ‘선이 부모 모르게 미친한 사람을 얻어 혼례를 치렀다’ 하여 조정에 시비가 들끓기에 낙양 수령에게 기별했나이다.”

하니 여 부인이 말했다.

㉠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애정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지라. 옛날 송나라 황제도 정궁(正宮)을 폐하고 후궁(後宮)을 맞이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한 일이 있소. 내가 비록 그대 모르게 주관했으나, 그 남자는 첩과는 다르오. 또한 선이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니, 그때 상서가 원하는 가문을 골라 며느리를 구해도 될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죄 없는 남자를 죽이려 하지 마시오.”

상서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지만, 말누이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오리다.”

하고 새로 보낸 낙양 수령을 불러 분부했다.

㉡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우리 누님이 하도 말리시니 그럴 수가 없도다.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놓아 주되, 멀리 보내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중략 부분 줄거리] 상서 부인은 아들 이선을 낳을 때 해산을 도운 선녀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 아들의 배필이라고 한 말을 뒤늦게 떠올리고서 숙향을 다시 불러 들인다.

“네 집은 어디며, 부모는 누구이고, 나이는 몇이나 되었느냐?”

남자가 절을 하고 바르게 고쳐 앉으며 여쭙었다.

“다섯 살 때 부모님을 난리 중에 잃고 길거리를 방황했는데 어떤 짐승이 업어다 남군 땅 장 승상 댁에 내려놓았나이다. 마침 그 집에 자식이 없어 저를 친자식처럼 십 년을 기르셨으니, 고향은 물론 부모님의 성명도 모르옵나이다.”

상서가 또 물기를,

“장 승상이라 하면 남군 땅 장승밖에는 없는데, 거기 있다가 어찌하여 이화정 할미의 집으로 왔느냐?”

하니 남자가 대답했다.

“승상 댁에 있던 사향이란 종이 승상 부인의 봉채를 훔쳐다 첩의 화장 그릇에 넣어 놓고 첩이 훔친 것처럼 모함했나이다. 그 일로 인해 승상 댁에서 쫓겨나 포진물에 빠져 죽으려 했는데, 마침 연꽃을 따는 아이들이 구해 주며 동쪽으로 가라 했나이다. 동쪽으로 가다 또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사운데, 화덕 진군이라는 노인이 구하여 살아나게 된 것을 이화정 할미가 지나가다 보고 데려갔나이다.”

“장 승상 댁에서 할미 집까지 며칠 만에 왔느냐?”

“장 승상 댁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바로 왔나이다.”

㉢ “장 승상 댁에서 여기까지는 삼천삼백오십 리나 되니, 비록 천리마를 탔을지라도 쉽게 오기 어려우리라. 그런데 이를 만에 왔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도다.”

상서와 남자의 문답이 끝난 뒤에 부인이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며,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름은 숙향이옵고, 나이는 열여섯 살이오며, 기축년 4월 초파일 해시(亥時)에 났사옵나이다.”

“부모님 성명도 모르면서 생월생시는 어찌 그렇게 자세히 아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게 ㉠ 비단주머니를 채워주셨는데, 자란 후에 보니 생월생시를 적어넣었다이다.”

숙향이 주머니를 끌러 부인에게 드렸다. 부인이 비단주머니를 풀어 보니, 붉은 비단조각에 ‘이름은 숙향이요, 자는 월궁선이며, 기축년 4월 초과일 해시생이라’는 글씨가 금자(金字)로 쓰여 있었다. /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내 아들과 나이가 같고, 이름도 선녀가 일러준 것과 같되, 다만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하니 상서가 말하기를,

“이 글을 금자로 썼으니, 틀림없이 성은 김씨인가 하노라.”

했다. 남자가 말하기를,

㉡ “제가 자란 후에 우연히 듣자오니, 지난번에 낙양 수령으로 계시던 김전이 제 부친이라 하더이다. 그러나 제가 어찌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사오리까?”

하니 상서가 말했다. / “만일 그렇다면 오죽 좋으랴.”

이에 부인이 묻기를, /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이가?”

하니 상서가 말했다.

“김전은 이부상서 운수 선생의 아들이라. 가문이 어찌 거룩하지 않으리오.”

부인이 말하기를 / ㉢ “시간이 지나면 자연 알게 되리이다.”

하고 남자에게 이선의 처소인 봉황당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남자가 봉황당으로 내려가니, 남군이 부리던 시녀 여남은 명이 남자를 매우 공경하면서 극진하게 모시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3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통해 사건의 사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3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누이는 숙향을 죽이려는 상서를 질타했다.
- ② 이화정 할머니는 숙향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십 년 동안 길렀다.
- ③ 상서 부부는 숙향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 ④ 낙양 수령을 지낸 김전은 이부상서를 지낸 가문의 자손이다.
- ⑤ 남자는 상서 부인의 말에 따라 남군의 처소에 머물게 된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 연장자의 권위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입장을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마지못해 수정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 :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말에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 :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이 전해 들은 것임을 들어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 : 자연의 이치를 고려하면서 이후에 펼쳐질 사태에 대해 염려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이 현실성을 지니게 한다.
- ② 현재 사건의 원인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③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게 한다.
- ④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이 표출되도록 한다.
- ⑤ 인물의 감춰진 재능이 발휘되게 한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에 창작된 「숙향전」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위한 고난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차례의 위기가 두 인물의 결합을 방해하지만, 이들은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하늘의 예정된 운명에 따라 혼인한다. 이 과정에서 애정을 중시하는 두 남녀가 봉건적 신분 질서와 가문을 중시하는 지배층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개인적 차원의 애정이 권위적인 지배 이념과 충돌하는 대목을 통해 신분제가 동요되는 당시의 사회현상을 엿볼 수 있다.

- ①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한 숙향을 화덕진군이 구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한 경우이겠군.
- ② 부모 몰래 아들이 결혼한 것이 조정의 시뻘거리가 되었다는 상서의 말은 권위적인 지배 이념에 따라 나타난 반응이겠군.
- ③ 숙향의 이름이 선녀가 일러준 것과 같다는 상서 부인의 말은 하늘의 예정된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표현이겠군.
- ④ 아들이 미친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상서가 남자를 죽이려는 것은 개인적 애정보다 가문의 위상을 중시한 결과이겠군.
- ⑤ 사향의 모함으로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난 숙향이 죽으려 한 것은 남녀 주인공이 결합에 이르는 여정 중 겪는 고난에 해당하겠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특수한 생활사에서 나온 무의식의 층과는 달리,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인간 고유의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의 층이다.

용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다. 용의 이와 같은 가설은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건강한 사람의 꿈과 원시 종족의 심성, 신화와 종교, 서양 사상과 인도·중국 등 동양의 사상을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다. 용은 무의식이 개인 생활의 경험 자료만이 아니라 인류의 태곳적부터 끝없이 반복되어 경험되는 일정한 인간적 체험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무의식은 수많은 신화적 상징으로 표현되고 경험되며 모든 의식된 마음에 활력을 주고 그 기능을 조절하여 의식과 통일된 '전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무의식은 충동의 창고, 의식에서 쓸어 낼 쓰레기장이거나 병적인 유아기 욕구로 가득 찬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케 하는 '창조의 샘'이라는 얘기다.

㉠ 무의식의 창조적 작용은 자율성과 보상 작용으로 표현된다. 자아 의식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면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의식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이미지를 보내서 그것을 보상한다. 예컨대,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 꿈속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욕망에만 사로잡힌 일을 벌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일방성을 깨우치고 의식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무의식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보상 작용을 발휘하여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 맥락에서 용이 말하는 **그림자** 개념이 주목을 끈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으로,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되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아의식이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아는 자신이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자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그늘에 속하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자아의식 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성격,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바로 그 성격이다. 가령, 친구한테 비난당할 때 심한 분노를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 그림자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자를 밖으로 투사(projection)할 때 그 투사 대상을 향한 자기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 투사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강력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고 자아가 그 대상에 집착하게 만든다. 투사는 나쁜 것은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괴로운 마음을 피하려는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적인 마음의 일부를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도 일어난다. 무의식의 내용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투사되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투사 대상에게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 속의 무의식적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림자의 투사는 집단 차원에서도 벌어진다.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는 어떤 집단 성원의 무의식에 같은 성질의 그림자가 형성되어 다른 집단에 투사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그림자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기보다 집단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을 하나의 집단 의식과 동일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하나'로 대변되는 슬로건 밑에 결속을 다짐할 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집단과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이 집단은 쉽게 배타적이 되거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향하는 집단적 목표가 일방적이고 뚜렷한 것일수록 이에 어긋나는 요소가 억압되어 공통된 그림자를 집단 성원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아무리 선의로 뭉친 집단이라도 너무 밝은 목표에 치중할 나머지 자기 집단 성원의 그림자를 보지 못할 때 처음의 좋은 뜻을 펼치는 데 실패할 ㉡ **공산이 크다**.

다만, 인간 집단은 집단 행동을 통하여 집단적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 이를 다른 집단에 투사하여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며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림자를 사회 표면으로 끌어 내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카니발'과 같은 문화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그림자를 투사하여 속죄양을 만들고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기능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형태에서 '그림자 놀이'를 통해 각자의 그림자를 살려서 도덕이나 규범 의식과 무의식적 충동 사이의 단절을 지양할 수 있는 것이다.

41.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는 불가능하다.
- ㉡ 집단 무의식은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이다.
- ㉢ 무의식이 제어 불가능한 충동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
- ㉣ 속죄양에 관한 개념을 만들어 자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히는 것은 무의식이 작용하는 결과이다.
- ㉤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무의식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항상 예술적으로 승화된 형태의 결실을 낳는다.

4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의식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의 일부이다.
- ㉡ 의식이 무의식과 활발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 ㉢ 의식이 한 방향으로만 활성화될 경우 그에 반발하여 표출되는 무의식의 이미지 작용이다.
- ㉣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이 지향하는 인격을 대신 구현하려는 무의식의 작용이다.
- ㉤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하는 강도가 커질 때 무의식이 의식 표층에 떠오르는 이상 징후이다.

43. **그림자**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분노의 상황에서는 그림자를 볼 수 없다.
- ② 그림자는 무의식의 그늘에 속하는 인격이다.
- ③ 그림자는 집단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④ 그림자는 자아가 싫어하여 닮으려고 하지 않는 열등한 성격의 일부이다.
- ⑤ 사회 표면으로 그림자를 끌어 내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장치가 있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카니발은 가톨릭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라인강 유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해가 바뀌는 연말에는 각지에서 가면무도회가 열리고, 부활절 전의 카니발에서는 기상천외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등장한다. 마치 근엄한 가톨릭 수도원 공간에 유폐되었던 이교(異敎)의 귀신과 악마와 별의별 부도덕한 불한당들이 뚜껑을 열고 나온 듯하다. 신분적 위계나 윤리 규범의 제약 속에서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는 극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신분적 위계 질서에서 하층에 속하는 이들이 펼치는 의례나 연희, 놀이 등에서 자주 확인된다. 가령 탈춤판에서 양반 세력을 희화화하고 농락하며 신분적 위계를 해체한 가운데 성원들 서로가 어우러지는 장이 펼쳐지는 것은 카니발을 떠올리게 한다.

- ① 기성 질서에서 지배층은 '집단적 그림자'가 만든 무의식의 그늘에서 벗어날 특권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면'을 쓰거나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하는 행위는 투사된 '그림자'를 극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카니발'은 참여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그림자 놀이'를 설명하는 예로 삼을 수 있겠군.
- ④ '수도원 공간'은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욕망에 연관된 '집단적 그림자'를 가두는 수용소에 상응하는 표상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탈춤'은 신분 질서에 억눌린 욕구가 연희를 통해 투사되는 장을 연다고 할 수 있으니 '집단적 그림자'가 승화된 형태라 할 수 있겠군.

45.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회(機會)가 많다
- ② 단서(端緒)가 많다
- ③ 여지(餘地)가 많다
- ④ 예외(例外)가 많다
- ⑤ 정보(情報)가 많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25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http://www.police.ac.kr>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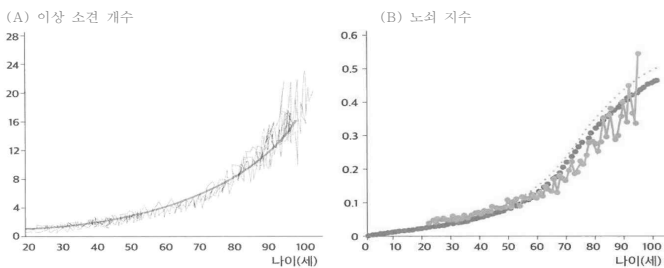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화는 유전자와 환경이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하여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일으키는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노화는 일종의 속도 개념으로 생활 습관 등의 요인에 의해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 이를 각각 ‘가속노화’와 ‘역노화’라고 한다. 생물학 연구에서는 유전자 또는 환경을 조절하거나 생물학적 기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식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여 2년 가까이 사육해야 얻을 수 있는 생쥐를 빠르면 6개월 정도 만에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노화가 쌓이면 개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누적되는데, 이 누적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활용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노쇠 지수**라는 것이 있다. 노쇠 지수는 진찰이나 면담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항목 30가지 이상을 측정하여 정상은 0, 이상은 1로 계산하여 나온 총점수를 구성 항목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대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신뢰할 만하다. 만약 측정 항목 100개 가운데 10개가 정상이 아니라면 노쇠 지수는 0.1이 된다.

측정한 항목 개수가 같다면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수적으로 올라간다. 0~1의 범위로 나타나는 노쇠 지수도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에서 나이에 비례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개인의 노쇠 지수를 숫자 나이가 같은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해 그 사람이 노화가 더 축적되었는지, 덜 진행되었는지를 꽤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노쇠 지수가 일정 정도가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면 질병, 투약, 치료나 스트레스 등 환경 변화에 대해 많은 측면에서 몸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진다.



[그림 1]

[그림 2]

실제로 인체의 이상 소견 개수를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평균으로 나타내면, 생활 습관이나 유전자의 차이를 제외한 시간 자체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그림 1]에서처럼 노화와 연관성이 있는 이상 소견의 개수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고, [그림 2]와 같이 노쇠 지수도 마찬가지로 인구 집단에서 나이를 추종한다. 대략 60대 초반까지는 아주 천천히 오르다가 그 이후가 되면 곡선의 모양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 집단에서 노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항목으로는 걷는 속도, 균형 감각,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다양하다. 노화 연구자들은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노화 평가 방법이라고 했다. 걷는 속도와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조합해 계산한

생물학적 나이는 인터뷰를 통해 계산한 노쇠 지수나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생물학적 나이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기능 이상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정도이면 그 문제는 신체 기능 변화로 관찰된다는 것인데, 움직이는 능력과 같은 신체 기능의 차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노화 축적 정도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성인 시기의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며, 중년기에 접어들 때의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준다.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질병과 노쇠는 장애를 가져오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몸에 이르기 전부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통해 질병과 노쇠로 인한 돌봄 요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그렇다면 잘 나이가 드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물학적 나이는 노화가 진행된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② 사람마다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차이는 분자생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 ③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이상이 누적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면 신체 기능의 변화로는 관찰할 수 없다.
- ④ 개인의 노쇠 지수를 측정한 후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하면 그 사람의 상대적인 노화 정도를 알 수 있다.
- ⑤ 기능적 항목을 조합해 계산한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 계산한 노쇠 지수에 필적하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노화 평가 방법일 수 있다.

2. 밑글에서 활용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 ②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질문의 방식으로 개념의 정확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항목을 나열하여 각각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상반된 양상을 제시하여 두 대상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다.

3. 노쇠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30개의 측정 항목 가운데 정상이 24, 이상이 6이면 노쇠 지수는 0.25이다.
- ② 여러 질병과 관련된 변수를 적게 고려할수록 노쇠 지수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100개 항목을 측정할 때의 노쇠 지수는 구성 항목의 개수를 이상 항목의 개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 ④ 30개 항목을 측정한 사람들의 나이별 이상 소견 개수는 시간의 영향에 따른 노쇠 지수의 증가와 유사한 패턴을 드러낸다.
- ⑤ 30개 항목을 측정하여 산출한 개인별 노쇠 지수가 비슷한 나이의 평균값보다 높으면 노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답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② 노쇠나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③ 가속노화의 경험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생물학적 나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④ 중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젊은 성인기에서부터 환경 변화에 대한 몸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 ⑤ 건강수명의 손실에 따른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전에 돌봄 요구 기간을 앞당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5. [그림1]과 [그림2]에 초점을 두고 윗글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상 소견 개수가 많아질수록 노쇠 지수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 ② 건강수명을 늘려 돌봄 시간을 줄이게 되면 노쇠 지수의 기울기는 이전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
- ③ 완만하게 증가하던 노쇠 지수는 60세에서 70세로 넘어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 ④ 측정된 기능적 항목 개수가 같을 때 이상 소견 개수나 노쇠 지수는 나이대별로 같은 값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 ⑤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자를 포함할 때, 나이와 노쇠 지수의 관계를 나타낸 각 개인별 그래프는 같은 곡선을 형성할 것이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나)

폭포(瀑布)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A)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체적 심상을 나열하면서, (나)는 추상적 관념을 반복하면서 시상을 형성한다.
- ② (가)는 역동적인 장면을 서술하면서, (나)는 정적인 장면을 묘사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이 주는 정감을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상황의 반전을 통해 작품 속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대상의 여러 속성들에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7. 제목과 관련지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일’은 화자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대상이다.
- ② ‘추일’은 화자에게 경험적 시간보다는 심리적 상황으로 여겨진다.
- ③ ‘서정’은 ‘추일’에 반발하여 화자가 갖게 된 정서이다.
- ④ ‘서정’은 화자의 행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다.
- ⑤ ‘추일서정’은 화자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심리 상태로 그려진다.

8. (가)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구절은?

————— <보기> —————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으로

- 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 ②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 ③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민 채
- ④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9. (A)를 단서로 (나)의 ‘폭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폭포가 지닌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 ② 폭포의 현상은 밤이 되어야 드러난다.
- ③ 폭포의 본질은 폭포의 현상에 있지 않다.
- ④ 폭포는 현상과 모순되는 본질을 나타낸 것이다.
- ⑤ 밤이 되면 폭포는 낮과는 다른 본질을 갖게 된다.

1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대상의 핵심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 ② ㉠과 ㉡은 하강 이미지를 통해 슬픔을 나타낸다.
- ③ ㉠과 ㉡은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④ ㉠은 ㉡과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 ㉠과 달리, 사건의 전후가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번째로 내가 건우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 것은 학기 초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에 그가 써 낸 작품을 읽고부터였다.(나는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써 오라고 하였다.)

(A) 「섬 얘기」란 제목의 그의 글은 결코 미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고장 — 북송아꽃도, 살구꽃도, 아기 진달래도 피지 않는 조마이섬은, 몇 백 년, 아니 몇 천 년 갓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 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 명의로 둔갑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는 또 그 조마이섬 앞 강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넘어가 있다든가 하는 — 말하자면 선조 때부터 거기에 밭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도깨비처럼 뒤바뀌고 있다는, 섬의 내력을 적은 글이었다.

그저 그런 정도의 얘기를 솔직히 적었을 따름인데, 어딘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소년의 ㉠ 날카롭고 냉랭한 심사가 글 밑바닥에 짙 깔려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갑자기 무슨 고발이라도 당한 심정으로 그 글발을 따로 제쳐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중략)

“와 뻘히 보능기요? 내 안주 술 안 취했음데이. 염려 마아소.”

**갈밭새 영감은 기름이 절은 수건을 꺼내더니 이마를 한 번 훔치고서**

“인자 딴 말은 안 하지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이칸에 이왕 만넨 집에 저 송아지 빨갱이나 이 갈밭새가 사는 조마이섬 이바구나 좀 하지요.”

그러곤 정신을 가다듬기나 하듯이 앞에 놓인 술잔을 훌쩍 비웠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터만!”

윤춘삼 씨의 ㉡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B)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강제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 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서도 떠올랐다.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 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 꼭꼭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릿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우’는 ‘조마이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
- ② ‘윤춘삼’은 ‘건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조하며 분노했다.
- ③ ‘건우 할아버지’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해 비판했다.
- ④ ‘나’는 ‘건우’의 글에서 ‘나’를 고발하려는 의도를 읽고 걱정했다.
- ⑤ ‘조마이섬 사람들’은 ‘유력자’의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살아왔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장면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이야기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처한 현재 상황을 과거와 연결지어 보여주고 있다.
- ④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장소의 외적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외양 묘사에 내포된 인물의 행동을 암시하고 있다.
- ② ㉠과 ㉡에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는 상반되어 있다.
-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과 ㉡은 인물의 외적 모습과 마음 상태의 괴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에서 인물이 느낀 것과 같은 감정이 외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14.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나’가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의 기록을, (B)는 ‘건우’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의 기억을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특정한 글 속에 적혀 있는 사건에, (B)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사건에 대한 독자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사건의 내용을 인과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의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인칭 소설에서 서술자로서의 ‘나’는 인물로서 극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때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과 일치할 때도 있고 구분될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 ‘나’는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 사건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목격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술자로서의 ‘나’가 목격자임에도 이야기에 개입을 하여 서사 전개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전지적 시점과 유사한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내가 건우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 것’에서 주인공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로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갈밭새 영감은 기름이 절은 수건을 꺼내더니 이마를 한 번 훔치고서’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 사건을 관찰하고 보고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안의 극화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에서 서술자가 대화의 목격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에서 인물로서 극화된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학자 알박스는 무엇이 사회 집단을 결속시키는가를 연구하다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통찰하였다. 기억은 개인이 사건이나 경험을 간직하거나 회상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기억을 개인적 차원의 의식작용으로 간주한다. 알박스가 보기에 기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 집단의 성질과 분리될 수 없다. 이에 그는 ‘집단 기억’이란 개념을 주창하였다.

㉠ 알박스가 제안한 집단 기억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 차원의 기억을 말한다. 집단 기억은 구성원들이 상징적 기호를 공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의미를 획득할 때 형성된다. 이때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기념물, 건축물, 제의 등을 공유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이나 글로 소통한다. 집단 기억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만, 구성원들은 소속 집단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억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후속 세대에 전승한다.

그렇다면 집단 기억은 어떻게 전승되는가? 집단 기억의 전승에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회 집단과의 연관 등이 관여한다. 사회 집단은 공간을 통해 기억을 의미화하면서 널리 확산시키고 오랫동안 보전한다. 사회 집단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건축물을 설정하면 구성원들은 그 공간을 대면하면서 집단 기억을 회상할 수 있다. 공간이 사건을 의미화하지만, 그것이 기억으로 작용하려면 시간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낮과 밤, 계절 변화 등 자연적 시간은 기억이라는 의식작용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집단 기억의 형성과 전승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간이다. 절기, 기념일, 축제일, 정치적·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날 등 사회적 시간은 구성원들에게 집단 기억을 환기하고 다시금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듯 공간과 시간에서 형성된 집단 기억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징적 기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소통된다. 개인의 기억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집단 기억은 소통을 통해 후속 세대에까지 전승된다.

집단 기억은 구성원들이 소속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갖고 공동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구성원들은 소속 집단의 주요 사건에 대한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자신 혹은 그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뿌리가 되는 가문의 집단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인지를 파악하고 가문의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집단 기억은 사회 집단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문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집단 구성원들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교섭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들 간의 경합이 발생한다. 특정한 기억은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여 집단 기억으로 자리 잡고, 다른 기억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거나 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 권력 구조나 정치적 여건, 경제적 조건, 지리적 환경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A) 사회 집단의 권력 구조가 집단 기억의 형성 및 전승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문제적인 사건을 두고 기억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단 기억이 형성되도록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배제하고 억압한다. 이런 경우, 집단 기억은 해당 사회 집단의 권력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은 집단 구성원들이 형성한 기억들과 충돌하며, 구성원들은 때로 결집하여 권력에 대응하며 권력자의 의도와 다른 집단 기억을 지키고 확산시키기도 한다.

16.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한 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 후, 그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개념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한 후,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그 의의 및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개념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집단 기억의 의미
- ② 집단 기억의 종류
- ③ 집단 기억의 형성
- ④ 집단 기억의 전승
- ⑤ 집단 기억의 영향

18. (A)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단 기억의 안정성은 사회 집단의 권력관계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 ② 권력자와 달리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③ 집단 기억은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 ④ 집단 기억이 전승될 때 사회적 조건 중 권력 구조가 작용하므로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⑤ 권력자와 집단 구성원 간에 일방적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그 사회의 집단 기억은 형성될 수 없다.

19. <보기>의 ‘아스만’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아스만은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을 받아들여 이를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문화적 기억이 문화적 재현 형식을 통해 과거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억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집단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념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 형식으로 보존되고 전승될 때 신념과 인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스만은 집단 기억을 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구분하고, 소통적 기억이 일상의 상호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비교적 가까운 시대적 지평에 의존하는데 비해, 문화적 기억은 문화적 상징을 통해 다수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소통된다고 하였다.

- ① 집단 기억은 문화적 기억보다 소통적 기억에 근거할 때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신념을 높일 수 있다.
- ② 집단 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집단 기억은 문화적 재현 형식이 된다.
- ③ 개인이 자신의 기억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면 그 자체로 문화적 재현 형식으로서 집단 기억이 된다.
- ④ 집단이 함께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집단 기억은 신념이나 공동의 인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 ⑤ 집단 기억이 말을 통해 전달되며 개인의 의식 속에서 공유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거나 잊혀질 수 있다.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치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확산하여 나치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가해자로서의 기억과 패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기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독일인 중에는 나치와 관련된 건물을 없애 가해의 증거를 지우려 하는 이들도 있었다. 1979년 유네스코가 아우슈비츠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아우슈비츠는 인류의 어두운 역사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우슈비츠를 방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민족 절멸의 위기를 기억한다.

- ① 유대인의 집단 기억에서 아우슈비츠는 전쟁과 반인도적 행위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공유되었겠군.
- ② 아우슈비츠라는 상징적 기호는 독일인들과 유대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군.
- ③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 관한 집단 기억을 전승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겠군.
- ④ 일부 독일인이 나치와 관련된 건물을 없애려 한 것은 불리한 집단 기억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독일인들은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을 형성하면서 가해자로서 기억과 피해자로서 기억이 경합하는 혼란을 경험했겠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제 상황에서 목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하는 장면이 곧잘 나온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미란다 원칙’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어네스트 미란다는 어린 시절을 불우한 환경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20대의 히스패닉계 청년이다. 어느 날 아침에 그의 집에 두 명의 경찰관이 찾아온다. 열흘 전 썸 애리조나 주 사막에서는 납치 및 강간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다. 경찰관은 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한 후 경찰서에 나와 진술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순순히 동의하며 경찰과 동행했다.

미란다가 관련하여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핵심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과 용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경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절차를 마치고 경찰관이 조사실에 다시 왔을 때, 그곳에서 혼자 기다리던 미란다가 불안해하며 결과가 어떤지를 물었다. 경찰관은 짐짓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겼음을 암시했다. 미란다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자백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변호사나 목격자가 없었고,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미란다가 신문하면서 경찰관은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자의에 의해 협박이나 강요, 이익의 약속 없이 진술했음을 선서하며, 피의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써 있었다. 미란다는 거기에 진술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했다. 자백한 지 얼마 안 되어 미란다는 다른 강도 및 강간, 강간 미수 사건들을 추가로 자백했다.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대개 이런 재판은 하루만에 마치고 빠른 결론에 이르곤 했다. ㉠ 국선 변호인 무어는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에게서 조사 중 **진술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재판의 검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경찰관의 훌륭한 자질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고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들은 검사의 말에 공감한 것으로 보였다. 평의를 마친 후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하였으며, 판사는 장기형을 선고했다.

그 후 이 재판은 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자술서의 임의 진술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 1965년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미란다가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를 받았고 변호인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를 거절당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시금 확인했다.

1966년까지 연방대법원은 자백의 허용성을 검토할 때 적정절차 조항에 근거를 둔 임의성 기준에 따랐다. ‘임의성’이 있는지를 ‘사정의 전체’를 살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임의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피의자와 경찰에게 맡겨졌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사 기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었다. 1965년 11월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판결을 심리하기 위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 1966년 1월 28일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피고를 변호한 존 플린은 구두 변론을 담당하며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두고자 하였다. 둘째, 권리 고지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권리 고지를 하는지가 중요함을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였다. 플린은 미란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확대하여 당사자 지위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말은 미란다가 조사를 받았을 때 그가 경찰과 대립하는 당사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주장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다. 이전까지 법원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정헌법 제6조의 보호 아래 재판 전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해 왔으며 형편이 안 되는 피고인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두게 하였다. 그런데 플린은 이 권리가 피의자의 체포, 조사 과정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주장했던 것이다.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㉔ 1966년 7월 13일 열린 상고 허가심에서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채택하고 헌법적 근거를 찾음에 있어 수정헌법 제6조가 아닌 수정헌법 제5조를 선택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구속된 사람은 반드시 신문 전에 묵비권이 있음과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조사받는 동안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 질문하기 전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질문을 중단해야 한다. 피의자가 원한다면 변호인이 참여하기까지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 구속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그 후에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플린이 그 역사적 순간에 밝혔던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 내용이였다.

**2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란다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여러 건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 ② 경찰이 범죄 피의자로 미란단을 지목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의에 의해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 ③ 경찰은 미란다에게 자술서를 쓰게 했으며, 미란다는 자의에 의해 자술한다는 자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 ④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 ⑤ 연방대법원은 기존에 인용해 왔던 수정헌법 제6조 대신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재평가하였다.

**22. 밑글에 따를 때, ‘미란다 사건’을 다룬 연방대법원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급심 판사의 형량 산정은 적정했는가
- ②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는가
- ③ 증인은 범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증언했는가
- ④ 피의자는 당사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았는가
- ⑤ 대법원 판결은 수정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였는가

**23.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미란다 사건에 대해 각 주체가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 : 피의자가 자의에 따라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었다.
- ② ㉒ : 경찰관은 강요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자의로 진술했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았다.
- ③ ㉓ :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진술서에 기록된 피의자 권리를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 ④ ㉔ :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했다.
- ⑤ ㉕ : 경찰은 적정절차 조항을 지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사정의 전체를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4. 밑글의 맥락으로 볼 때,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최초로 법령에 규정된 순간이었다.
- ②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 ③ 법원이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순간이었다.
- ④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공론화된 순간이었다.
- 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25. 밑글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우리 헌법은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실무 차원에서 보면, 피의자의 묵비권이라는 권리와 이율배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의자의 자백이 의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① 현실이 법을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②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가져올 법적 판단의 결과나 파장을 잘 알지 못한다.
- ③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의자들은 자백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 ④ 묵비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피의자의 대부분은 범죄자이다.
- ⑤ 피의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을 선택한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자신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고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하룻밤 귀가를 원할 때, 그 환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환자가 병원의 감독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메리(가명)는 마흔 살의 여성으로 입원하기 전 세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 후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중에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말 외박을 신청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한 직원의 보고 덕분에 그녀가 외박 신청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박 며칠 전 그녀는 병원을 나가면 자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녀의 입원 중 인터뷰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에크먼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주 웃었고 긍정적으로 말했으며 쾌활하게 보였다. 그녀를 담당했던 담당 의사는 실제로 그녀를 믿었다.

에크먼과 그의 공동연구자인 윌리 프리센은 다중 고속 모션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그녀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프레임별로 검토했다. 인터뷰 중 어느 순간, 그녀가 멈칫하면서 얼굴에 엄청난 고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의사가 메리에게 그녀의 장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였다. 24장의 프레임 중 단 두 장뿐이었고 1/12초 사이에 지나갔으며 금방 웃음으로 덮였다. 그들은 그 장면을 반복해 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정지된 프레임에서 그녀의 진정한 감정은 매우 분명했지만, 곧 의도적으로 숨겨졌다. 그들은 필름에서 아주 재빨리 지나가는 고뇌의 표정을 두 번 더 찾아냈다. 이처럼 사람들의 진짜 느낌을 비언어적으로 '누설'하는, 아주 잠깐 동안의 얼굴 움직임들을 그들은 미표정(微表情)이라고 명명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에크먼과 프리센은 일부러 숨긴 감정과 억압된 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 밝힐 수 있었다. 미표정은 메리의 경우와 같이 의도적인 은폐일 때나, 또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 못할 때, 즉 감정이 억압된 상태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미표정이 이 둘 중 하나를 가리키는지는 구분이 안 된다.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에 대한 판정이 가능하려면 미표정이 발생하는 맥락을 분석해야 하고 종종 더 많은 질문도 던져야 한다. 여기서 맥락이란, 대개는 어떤 대화 상황이나 특성을 가리키는지를 뜻하는 대화의 맥락을 뜻하며, 그 외에도 두 대화 당사자 간 관계의 내력, 미표정이 나타나는 순간의 대화 순서, 그리고 미표정에 드러나는 감정과 발화 간의 일치, 이를테면 피평가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목소리, 몸짓, 자세 등과 일치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미표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에크먼은 대화 도중 미표정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단어들과 목소리의 톤, 그리고 몸짓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의 얼굴 움직임을 식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화 중 대개 다음 순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종종 주의를 빼앗겨서 미표정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미표정을 분간하기 위한 반복적 학습과 그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가장 흔히 혼동하는 감정표현, 이를테면 분노와 혐오, 두려움과 놀람 등을 시각적으로 대조하는 훈련을 해 봄으로써 표정 속에 감추어진 감정을 탐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미표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억압된 감정도 알 수 있겠거니와 그가 일부러 숨긴 감정과 이를 통해 은폐하려 했던 진실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피노키오박에 없다.” 에크먼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단서들을 살피면서, 순간적인 느낌에 관한 거짓말은 감정 숨기기와 표정 꾸미기 중 하나로 이루어지며 그 중 표정을 꾸미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쾌한 느낌을 은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웃음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가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럴 경우에도 표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비대칭이나 감정 기반 근육 운동의 부재(예컨대 웃을 때 눈둘레근의 외측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의 시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꾸며낸 표정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26. 윗글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메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 ② 거짓말에 담긴 감정은 무엇인가
- ③ 거짓말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 ④ 거짓말은 인간관계에서 왜 중요한가
- ⑤ 성공한 거짓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은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 ② 사람은 내면의 모든 감정을 자각하지는 못한다.
- ③ 꾸며낸 표정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길 수 있다.
- ④ 숨기려 하지 않는 한, 감정은 표정을 통해 드러난다.
- ⑤ 감정을 숨기는 것이 꾸며낸 표정을 보이는 것보다 쉽다.

28. 윗글을 읽고 독자가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밀한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표정을 분간할 수 없겠군.
- ② 미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와 배경을 알 수 있겠군.
- ③ 미표정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서 실용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군.
- ④ 어떤 사람이 보인 미표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군.
- 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알려면, 매 순간 주의를 집중하여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해야겠군.

29. <보기>의 내용과 윗글 간의 논리적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3점]

<보기>

모든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단서들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서는 사고와 감정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려주는 가장 명백한 인지적 단서는 설명 속에 존재하는 모순이다.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망설임 또한 명백하고 유익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속이는 것과는 무관한 무언가를 뜻할 수도 있으므로, 거짓의 판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① <보기>는 윗글과 대립적 관점에서 미표정의 기능이 제한적인 이유를 증명한다.
- ② <보기>는 윗글에 대한 보완적 관점에서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를 추가한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동일한 관점에서 사람의 행동 특성이 거짓말을 드러내는 유일한 단서라는 데 동의한다.
- ④ <보기>는 윗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사람의 표정에서 그의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 ⑤ <보기>는 윗글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감정적 단서나 인지적 단서로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을 변별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30. 표정 과 미표정(微表情)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

- ① 개척 : 미개척                      ② 생물 : 미생물
- ③ 결정 : 미결정                    ④ 소년 : 미소년
- ⑤ 완성 : 미완성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小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 년 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쩍 지나 조물이 시샘하여  
 봄바람과 가을 물이 배울에 북 지나듯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르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인연을 끊었어도 생각이야 없을쏘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았으면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리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슨 일이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의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올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어 굵이굵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 일 년 일도 실기(失期)치 않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풀 끝에 아침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제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동 말 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나)

임 그리워하는 꿈이 **귀뚜라미**의 뉘이 되어  
 기나긴 가을밤에 임의 방에 들어갔다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박효관

(다)

①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드나무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어 있는고  
 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 조현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고, (나)는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을, (다)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나)는 임을 그리워하는 심사를, (다)는 외로운 심사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회상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2.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고 안도하고 있다.
- ②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한다.
- ③ 화자는 서러운 마음으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 ④ 화자의 부모는 화자가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했다.
- ⑤ 화자는 세월이 흘러 변해버린 자신의 용모를 안타까워한다.

33. **귀뚜라미**와 **빈 배**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②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 ③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향을 상징한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 ⑤ 시상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서 ㉠과 성격이 다른 것은?

<보기>

시적 상황은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 ② 여름날 길고 길 제 곶은비는 무슨 일이고
- ③ 삼춘 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 ④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울 제
- ⑤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은 봉건적 규범 아래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많던 시대였다. 당대 여성들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하여 친정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했고, 삼종지도(三從之道)라 하여 평생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르며 살아야 했다.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악행을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 하였는데, 아내가 시부모에게 불순하거나 남편의 외도를 시샘하는 것, 심지어 말이 많은 것도 해당되었다. <규원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창작된 규방가사로, 화자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① ‘당시의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에서 시집 온 후 남편을 모시며 조심스럽게 살았던 화자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내 얼굴을 내 보거나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에서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삼삼오오 야유원의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에서 남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 ④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에서 봉건적 규범 속에 살아가는 화자의 한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군.
-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동 말 동 하여라’에서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빅데이터란 크고 복잡해 일반 컴퓨터로는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 빅데이터는 큰 용량, 빠른 속도, 다양성을 갖는 정보 자산으로 통찰력,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동화 등 혁신적인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빅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통계학에서 쓰이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이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정형 데이터는 결제 금액, 회계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일컫는다. 비정형 데이터는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처럼 형태와 구조가 정형화되지 않은 복잡한 데이터를 뜻한다.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로는 온라인 리뷰,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대부분 정형 데이터 위주였다면,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여 기존의 통계로는 분석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이 부각되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구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에 따라 의미나 문법 규칙이 전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모든 텍스트는 특정 언어로 만들어지는 만큼, 언어의 문장구조를 분석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비로소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텍스트 마이닝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는 수십억 개 이상의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기반 서비스는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스트리밍된다. 최근 이러한 데이터는 영상,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 원시 데이터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원시 데이터 세트를 기본 형식으로 저장하는 곳이 데이터 레이크이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컴퓨터의 성능은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이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인간이 찾을 수 없는 패턴까지 추출해 스마트 데이터를 찾아낸다. 빅데이터가 가공 처리 전 원재료라면, 데이터 마이닝은 이를 정제하는 작업이다. 정제 및 가공 처리된 데이터를 ㉢ 스마트 데이터라고 한다. 이렇게 분석과 가공된 스마트 데이터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3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의 종류이다.
- ② 형태가 구조화된 데이터보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 ③ 텍스트 데이터는 언어 규칙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정보를 구조화하는 데 용이하다.
- ④ 원시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 ⑤ 빅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목적에 맞는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효율적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패턴을 추출한 결과를 축적한 것이다.
- ② ㉡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기반 서비스에서 생성된 영상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다.
- ③ ㉠은 ㉡과 달리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정보를 기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달리 수십억 개 이상의 콘텐츠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저장한다.
- ⑤ ㉠과 ㉡은 모두 영상,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원재료 상태로 구성한 것이다.

3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 킬로바이트 단위에 불과했던 텍스트 데이터의 양이 이미지와 영상 등이 포함된 데이터로 바뀌며 메가바이트와 기가바이트 수준이 되었다.

(나) 데이터 수집은 컴퓨터, 네트워크, 스마트폰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데이터 흐름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다)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컴퓨터에 수치 정보가 입력되며 또한 검사 기기에서 생성된 생체 정보, 유전자 정보, 질병 정보, 영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 ① (가)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빅데이터 처리 속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 ② (나)는 정형 데이터를 비롯해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양하게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 ③ (다)는 데이터 환경의 변화로 정형 데이터를 비롯해 비정형 데이터까지 생성되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빅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인 규칙과 방법을 적용하는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데이터 처리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양이 증가된 상황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39. <보기>의 내용을 밑글에 추가하려고 할 때, 글쓴이가 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을 보니 야채, 고기가 문 앞에 배송되었다. ‘주문하지도 않은 식재료가 왜 왔지?’ 하는 생각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늦어 택시를 부르려고 음성 인식 스피커에 말을 걸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택시를 호출할까요?’라고 물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주변 식당 정보가 스마트폰 알람으로 전송되어 가장 덜 붐비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돌아왔다. 오후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인공지능이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5년 치 예측 데이터를 이미 내놨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예측한 데이터는 오차 없이 맞았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나 기후 변화로 인한 변수는 아직 완벽히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워낙 높아져 생산과 재고로 인한 손실은 크게 줄었다.

- ① 빅데이터가 인간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 ② 개인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데이터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③ 불확실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빅데이터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 ④ 스마트 데이터의 변수에 따른 손실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점 커지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 ⑤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음성 인식 스피커가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4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경찰은 그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② 당신은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③ 업무를 제게 맡겨 주시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④ 부패 방지를 위해 시신을 알코올로 처리하여 안치했다.
- ⑤ 이 일을 장난처럼 처리하는 당신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홍모 부부는 선녀가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딸 계월을 낳는다. 계월은 난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후 평국으로 개명하고 남장한다. 이후 평국은 장원 급제하고 대원수가 되어 난을 평정한다. 천자는 평국이 여자임을 알고도 신임하여 보국과 혼인시켰으나 보국은 평국을 소홀히 대한다. 그러던 중 반란이 일어난다.

(A)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를 불러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예전에는 밖에 나와 일을 했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는데, 어찌 전쟁터로 보내겠는가?”  
 이에 모든 신하가 말했다.  
 “평국이 비록 아녀자로 집 안에 있으나, 조야에 이름이 있고 작록을 거두지 않았는데, 어찌 아녀자라 하여 거리끼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렀다.

평국은 집 안에서 날마다 시녀들을 데리고 장기와 바둑을 두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곧바로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관을 따라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집 안에 머문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대를 보니 기쁘기 한이 없도다.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열어젖히고 황성을 침범하려 한다고 하니, 그대는 나아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제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관직에 올라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했는데,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에 진을 치고 홍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명령을 내렸다.

“적병이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보국이 이 명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께 여쭙었다.

“계월이 또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공이 말했다.

㉠ “전날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르더냐? 계월을 괘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하겠느냐? 나랏일이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공은 보국에게 나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은 할 수 없이 바빠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홍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 원수

가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B) 보국이 두려워하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 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해 주고 가을날 구월 갑자일에 행군을 시작했다. 십일월 초하룻날 남관에 당도해 삼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오일에 천속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광야에 진을 치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홍 원수가 적진 가까이 진을 치고 명령했다.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 두고 벨 것이다.”

호령이 서릿발 같아, 모든 장수와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홍 원수가 보국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

보국이 명령에 순종해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 하니, 너희는 빨리 나와 칼을 받아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세 번도 채 겨루지 않아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적장 운경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자,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해 창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지도 못해, 보국이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은 운경의 머리를 베어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해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큰 소리로 고함치며 달려들고, 난데없이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해 피하려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이나 에워쌌다.

사세가 위급하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홍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재빨리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해 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에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4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평국은 나랏일을 한 적이 없다.
- ② 평국이 군령을 몇 번 반복하자 비로소 장수들과 군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 ③ 평국의 부하가 된 것에 불만을 가진 보국이 처소에만 머물러 진군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 ④ 보국이 평국의 군령을 어기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상황이 악화되었다.
- ⑤ 평국이 위기에 빠진 보국을 구하러 적진으로 가서 활약하고 돌아오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당사자는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낸다.
- ② 대화 당사자는 각자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 ③ 대화 당사자는 누구도 대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대화 당사자는 모두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⑤ 대화 당사자는 대상 인물의 능력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인다.

43.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환상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사건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주인공에 대한 일화를 나열하여 주인공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있다.

44.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주인공은 자신이 여자라 전쟁에서 원수의 직분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군.
- ② 수많은 적군을 한칼에 쓸어버리는 모습에서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주인공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아내로서의 역할보다 신하로서의 책무를 더 우선시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주인공이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 후 사회적 활동을 제약받긴 하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군.
- ⑤ 주인공은 더 높은 관직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준 천자의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기로 했군.

45. ㉠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 구멍이 독을 무너뜨린다.
- ②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⑤ 산이 커야 골이 깊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모집 1차시험 정답

□ 국 어

문항	1	2	3	4	5	6	7	8	9	10
배점	2	2	2	3	2	2	2	3	2	2
정답	①	①	②	③	①	①	①	②	②	④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배점	2	3	2	2	2	2	3	2	2	3
정답	④	④	③	②	⑤	③	③	②	⑤	①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배점	2	2	2	2	3	2	2	3	2	2
정답	②	②	④	②	①	⑤	⑤	①	②	③
문항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배점	2	2	2	3	2	3	2	2	2	2
정답	④	④	⑤	③	⑤	⑤	③	③	④	⑤
문항	41	42	43	44	45					
배점	2	2	2	2	3					
정답	⑤	①	②	③	④					

# 2023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1차 시험 정답

## □ 국 어

문항	1	2	3	4	5	6	7	8	9	10
배점	2	2	2	2	3	2	2	2	3	2
정답	④	⑤	⑤	①	④	⑤	②	③	②	①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배점	2	3	2	2	2	2	2	3	2	2
정답	⑤	③	③	②	④	②	④	④	③	⑤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배점	2	2	3	2	3	2	2	2	2	2
정답	④	①	④	②	⑤	①	③	②	②	③
문항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배점	3	2	2	3	2	2	2	2	2	3
정답	⑤	①	③	⑤	①	②	③	④	③	③
문항	41	42	43	44	45					
배점	2	2	3	2	2					
정답	①	⑤	②	④	①					

# 2024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모집 1차시험 정답

국 어

문항	1	2	3	4	5	6	7	8	9	10
배점	2	2	3	2	2	2	2	2	2	3
정답	②	⑤	④	①	③	①	②	⑤	②	③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배점	2	3	2	2	2	2	2	3	2	2
정답	①	②	⑤	②	④	④	③	⑤	⑤	②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배점	2	2	2	2	3	2	2	2	3	3
정답	④	⑤	③	④	③	②	④	①	⑤	②
문항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배점	2	2	2	2	3	2	2	2	2	3
정답	①	①	②	⑤	④	②	②	⑤	③	③
문항	41	42	43	44	45					
배점	2	2	3	2	2					
정답	④	③	①	①	③					

# 202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모집 1차시험 정답

국 어

문항	1	2	3	4	5	6	7	8	9	10
배 점	2	2	2	2	3	2	2	2	3	2
정답	3	2	4	5	5	1	3	5	3	1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배 점	2	2	2	2	3	2	2	2	2	3
정답	4	5	5	2	1	1	2	4	5	2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배 점	2	2	3	2	3	2	2	2	3	2
정답	4	4	5	4	2	3	5	3	2	2
문항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배 점	2	2	2	2	3	2	2	2	3	2
정답	3	1	1	3	5	3	4	3	4	4
문항	41	42	43	44	45					
배 점	2	2	2	3	2					
정답	5	1	4	1	2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 경찰대학 기출 분석

---

국어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331 538 충청남도 아산시 신항면 용산길 100-60

경찰대학 인재선발계(본관 5층)

041)968-2355

경찰대학 홈페이지 : [www.police.ac.kr](http://www.police.ac.kr)